

양자/변형 ... 가변/유역 ... 가변/영수, 불 ... 가변/영수

가변의 - 가변의

# 아내가 그해보다



가변 - 가변 (?)  
가변 - 가변  
가변 - 가변

(종영원에게) 아메리카노 주세요.  
 (종영원에게) 부모님이 이틀 쯤 지으셨어요. 주인아.  
 전 에스프레소. 턱푼 쉼하세요.  
 (호기롭게) 참로 합시다.  
 (웃음) 예. 턱푼씨.  
 하. 그러게. 좋은 이틀 두고. (다시) 인아씨야.  
 (약수를 받으며 턱하듯) 예. 노매. 린. 님.  
 (새삼 약수 칭하며) 반갑습니다~, 주님장님임.  
 어제 잠을 못자서 머리누 못 감았어요.  
 어떤게 참... 이렇게 만나요, 우리... (수줍은) 풀이 빼게 하구 나용 권..

인아, 새큰새큰한 표정으로 턱푼을 들여다본다.

S#2. 회사 앞 카페& 바 INT. 저녁

(목이 잔이 반가움으로 오피오! 소리를 낸다.)

턱푼 2002년 봄. 그녀를 다시 만났다.

(구두주인(인아, 29세)의 옆론에도 똑같은 표정이 인다.)  
 순간, 턱푼 옆론에 이는 클라움과 반가움!  
 턱푼, 일단 겹짜게 판독을 더럽고는 고개를 들어 구두 주인을 응시한다.  
 몸들으로 비죽이 나온 뱀이 나는 여자 구두.  
 턱푼, 아우씨, 숨을 내쉬는데 단히던 끈 조금 열린 채로 멈춘다.  
 턱어린 듯 뛰어 내려오는 턱푼. 그러나 아슬아슬하게 지하철 문이 닫힌다.  
 지하철 소리 들리자 황급히 플랫폼을 향해 뛰어.  
 지하철 역사안. 턱푼이 사람들과 어깨를 스치며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다,  
 CA, 타이틀이 쓴 사인보드를 지나 거리로 내려오면 탑 크레딧이 시작되고  
 거리엔 온통 월드뷰드... 한국의 16강을 지원하는 광고와 방송이 넘치고 있다.  
 밝은 터를 걷은 젊은이를. 운차며 가는 조음학생들이 스치고  
 그런 인파와 차들 사이로 뛰다시피 걷는 턱푼.

아내가 결혼했다

(클러킹 거리 소음과 경쾌한 음악이 터지며  
 커다란 거리 사인보드에 타이틀이 뜬다.)

S#1. 프롤로그-거리에서 지하철로 EXT./INT. 아침

(현제, 카페) 덕풍을 보고 화사하게 미소 짓는 인아.  
 인아 예, 초대님.  
 덕풍 하. (환 환을 했다가 수줍) 초대님, 부모님이 이틀 쯤 봐 줬어요~.  
 주인이야, 주인이세요.  
 인아 인아와 김진호, 그리고 주변 사람들 웃는다. 덕풍도 어색하게 따라 웃는데,  
 (웃으며) 좋아! 좋아!  
 덕풍, 마치 자기가 거절당한 듯 어색.  
 인아 (장난스럽게) 좋아요!  
 덕풍이 뻔지도 못한 만큼 썩면 썩기는데, 인아의 대답  
 김진호 (덕풍과 동시에) 인제, 차라도 한잔해야죠, 우리!  
 덕풍 인제 우리 차 한잔 해요  
 인아, 덕풍 쪽을 비포스 돌아보는데, 김진호 다시 인아를 부른다. '탑장님, 인아, 다시 김진호를 돌아보는 타이밍과 절묘하게 겹치며  
 덕풍 (조용히 부름) 초대님~. (못 듣자 다시) 초대님입니다.  
 덕풍 그때 내가 하려던 말은,  
 덕풍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직원하나(김진호)와 매화종인 인아가 있다.  
 주변에 회사동료들. 덕풍, 기회를 엿보듯 앞을 보고 있다.  
 (같은 장소, 시간만 겨우느낌) 디폴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들...  
 덕풍 기역을 못한 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땐 내가 하려던 말은 어떤 게 아니었으니까..  
 인아 (웃음)피.  
 덕풍 하. 맞다, 난 속으니까 한 줄 안았는데, 했죠? 송별회 때.  
 인아 예. 깃누 똑같이.  
 덕풍 진짜요?  
 인아 (성급다는 듯 웃다가, 뒷하듯 흘린다.)지. 전에 했잖아요. 그 소리.  
 때문에 모든 사람들 그냥 마당쇠로 만들잖아요. 주인이세요. 아씨~.

(회사) 덕홍의 모니터에 쪽지가 쓴다. 클린하면,  
내편이 맞죠? 노브라. 빨리 3만원!  
덕홍, 고개를 돌려 인어를 보면, 림에 물주해 있는 인어. 다시 앓음 보면,  
건진호 좋아 죽겠다느 표정으로 임포양으로 노브라'하고는 고개 숙인다.  
다시 인어 쪽으로 고개 돌리는데, 동시에 자리에서 물쭉 인어서는 인어.

덕홍

나? ... 난 그저 킴들이 없었다.

(현재, 카페) 호프를 커피를 마시는 인어. 그녀를 바라보는 덕홍의 옆론 워프

덕홍

...

부장

(그제서야 돌아보고) 노매리 왔어?

(아침) 서빙에, 커피 들고, 신문까지 옆에 놓고, 림으로 문을 따고 들어오는 덕홍.  
사무실엔 아무도 없다. 원장 물음 쳐려고 하는 순간  
회의실 칸막이로 새나오는 불빛. 둘러서 들여다보면  
이물속에 그대로 인하고 있는 인어. 파란 모니터 불빛만 신비스럽게 그녀를 비춘다.  
잠시 자신의 커피를 내려다보는 덕홍. 물까, 만약 만천이는 사이  
부장과 진호 등이 물음 하며 등장한다. 산물이 깨진다.  
피하듯 자기자리로 휘 돌아가는 덕홍.  
부장, 진호 등이 '말했어요?' 어찌구... 너스레를 떨며 인어 주위로 포인다.  
'여기, 커피', '베이론' 그녀 주위에서 티 파티가 벌어지는 동안  
인어의 시선으로 자기 자리에서 하릴없이 커피를 온 내려놓는 덕홍이 보인다.

덕홍

란 못한 고민까지...

휴게실. 인어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말하다 눈물을 흘리는 건진호.

덕홍

판레미 인화 선물부터,

부장

주립장, 요즘 애들은 뭘 사주면 좋아하나.

### S#3. 파거 몸타주와 현재 카페의 꼬자

덕홍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다.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주인아씨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조각이든 애 아빠든...

인아: 아하하하. 그제 왜 별게 아냐니까. 별 거죠!  
 인아: 네에.  
 덕훈: 아하하하. 그래서 우롱했다구요?  
 인아: (왜 그러나 짚어 빼혀 보며) 네에.  
 덕훈: (참 자르며) 아하하하. 바르셀로나요? FC 바르셀로나요?  
 인아: (그러니까..)  
 덕훈: 예에?  
 인아: (웃음) 바르셀로나가 쟁겨요.  
 덕훈: 아, 속 터져.  
 인아: (잠시 뜸. 웃음 짓고) 다 그렇잖아요. 남들한테 별거 아닌데.. 자기한테..  
 덕훈: 에이, 릴테요.  
 인아: 됐어요.  
 덕훈: 왜요?  
 인아: 롱격했죠.  
 덕훈: ? 음..  
 인아: (미소) 덕분에 오늘이 아주 재밌어졌어요. 아침까지 기분이 좋..  
 인아: 맞아요, 우연이 더 좋죠! 신비로우니까.  
 인아: 안 믿은 게 누군데!  
 덕훈: 아... 전화요~, ...전화... 물을 했었다.. 그게 뭐 또 어색해서..  
 인아: 꼭 마주쳐야 돼요? 전화 할 수도 있었죠.  
 덕훈: 진짜예요.  
 인아: 에이.  
 덕훈: (회리력 정신차리고) 꼭 한번 마주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형기칠 례.

#### S#4. 다시 회사 안 카페 & 바 INT. 밤

덕훈의 눈썹이 순간적으로 인아의 가슴계에 머문다. 혁.

인아: 이것 좀 봐주세요.  
 덕훈: 예? 뭘 봐요.  
 인아: 인아의 부들에 예? 하며 어색하게 인아 쪽을 보면,  
 인아, 아무렇지도 않게 기지개를 펴느라 가슴을 한번 내민다.  
 두 개의 유두가 분명히 비쳤다 사라진다. (타이트한 옷 전혀 아님)

인아 (산뜻) 노대린님!

간짜 돌란 덕훈,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인아 내전 당시 포랑포한테 묻까지  
 멋진 카탈루냐의 정신. 그 중심에  
 바르샤가 있었잖아요. 홀구장  
 유감포는 진짜 몸과 마음을  
 배출하는 유일한 해방구였거든요.  
 바르샤는 바르셀로나의 고결한  
 정신이에요. 축구이상이죠.  
 그런 바르샤를 배반하다니...  
 (울분했다) 피구는 배신자예요.

원하는 영웅이 되어왔다.. 울분하면 치켜 놓라가는 논쟁두...  
 (원인 언어를 새삼 물고리며 바라본다)

영미게 얘기하는 인아의 모습과  
 레안과 바르샤의 경기 화면이 교차한다.  
 하지만 나는?  
 바르셀로나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독재자 포랑포가 사랑했던  
 레안 마드리드의 팬이다. 왜냐고?  
 단순하다. 레안에 가면 지단이 있으니깐.  
 그리고 원하니까.

덕후

스페인 내전등 다들 소원 카탈루냐권과의 축구가 무슨 상관이라고? 상관~ 없다~.

인아 (흥분) 들이간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봤죠? 르누이베르트가 완벽하게  
 썼거든요, 어떻게 그게 안들어가요. (한숨) 라롱한테 먹은 문은  
 그렇다 쳐요, 진짜 추상한건 피구예요. 어떻게 피구를 못쳐요?  
 편사람도 아니구 피이구(인어의 진화벨이 웅련다)갑혀이이  
 (월드폰은 보지도 않고 다시) 하원이면 피구를!  
 (호웃) 클럽축구까지 쟁겨 보는 여자 문은 난생 처음 봐요.  
 원래 스포츠 좋아하세요? (벨소리에 약간 신경이 쓰인다)  
 (벨소리 따라 콧노래 부르며 리듬에 맞춰) 아노! 그냥 바르샤만 좋아하는 거예요.  
 아. 바르샤... 스페인의 명문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의 애칭이다.  
 카탈루냐 권가 있잖아요. 조지 오웰. 제가 그 책을 무시 좋아하거든요.  
 (벨소리 그린다.) 문났다! (포르르 전원을 끄며) 무시무지.  
 (인어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게 웬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산뜻) 안 받아주 왜요! 그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바르샤가 보이더려구요.

덕후

인아

덕후

인아

덕후

인아

덕후

인아

물이 건배한다. 물이 들렸다.

S#5. 정웅철 INT. 밥

(인아가 보면) 저누 어제 밤 잤다니까요.  
 (말았다! 반갑다.) !!  
 (반가워하는 인어를 보고는) 어떡하죠. 근데, 전 아침에 기분 좋았는데.  
 (체력보며) 레안 편이시구나.  
 열! 가늠이나 제지는데 인어까지... 얼마나 더 좋았어요. 아하하하.  
 (타박) 정말 짜지셨네요.  
 예. 아하하하.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하하하.

덕후

인아

덕후

인아

덕후

인아

덕후파 인아, 만원이 남은 잔을 비우다 곧 마주치자 쪽스럽게 한번 웃는다.

인아  
응원원

(응원원이 가져) 한참 재밌는데..  
(미소) 드시던 잔은 친절히 즐기십시오.  
(응원원에게) 저 시계 이상해요. 약 먹은 거 같아요.

덕후

(호방하게) 레안, 레안.  
덕후, 응원원에게 카드를 내밀며 텅텅한 표정.

응원원

인아가 지갑을 꺼내려고 하자 덕후 옆을 지갑에서 카드를 꺼낸다.  
결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마감시간이어서요.

덕후

(갑 빠진다) 응표오오..

덕후  
응원원

(틀쑥) 인아씨.  
(어느새 다가와) 죄송한데,  
덕후, 시계를 훑듯 훑듯 본다. 새벽 1시 35분.

덕후

내가 흥분한 것처럼 보이냐?  
원때 아니다. 피구고 지단이꼬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내게 중요한 건, 꼬나 스물이다.  
연장이나, 응표나.

인아 (탈끈) 쪼자안? 쪼자안?  
바르사하구 쪼잔은요,  
지구, 아나 우추 클에서  
클만믄 뵈다구요.  
바르스투타하고 피구는,  
원전히 경우가 다르다구요.

덕후

바르사가 피오렌타를 떠났을 때/  
바르사는 탈라요. 스포츠이기 이전에 정신이구 신념이죠.  
지역나시죠? 피구가 레알 유니폼 처음 입었을 때,  
그런 건 뭘 쪼잔하지 않냐? 한술밥 먹던 식구한테...

덕후

포르의 세계에 배신이 어딴습니까.

인아

이천년에 바르셀로나에서 레알로 이적한 루이스 피구 얘기. 일단 응수.  
(일괄) 배신자. 이적 관은 거 안 한다구, 몇 번을 말해 놓구.

그치만.. 뭘.. 축구는 더 이상 (시계를 한번 본다. 거의 한시)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인아가 다른 책을 둘러서 첫 장을 펴면 이변엔  
(비오는 우롱한 저녁에. 1978. 6. 7. 知漈.)이라고 써어있다.

덕홍: 하. 번역자네요?  
인아: 네. 이 책 주인은 선물 받은 걸 버린 거죠. (웃음)그리구.. 또... 이권,

인아: 책을 읽어 표지를 보이면, 번역자란에 적힌, 김은성 역'이 보인다.  
김은성이 누구예요?

인아: 들고 있는 책 첫 장을 펴면, 누군가 써놓은,  
조동원님께. 항상 건승하세요. - 김은성 드림.'이 보인다.

인아: 와.. 이런 언제 다 읽어요?  
인아: 언제 다 읽긴요. (자기 책장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안 읽죠.  
(웃음) 그냥 한책방이 좋아요! (책을 하나 뽑으며) 책을 사와요,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요, 그리구 햇볕에 말려요.  
그리구 (다시 책장에 꽂으며) 훑어요. 이렇게. (웃음). 그게 큰은 아니구,  
(다른 한편을 꺼내서) 가끔 다시 꺼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그리구,  
덕홍: 인아, 들고 있는 책 첫 장을 펴면, 누군가 써놓은,  
조동원님께. 항상 건승하세요. - 김은성 드림.'이 보인다.

(경과) 덕홍, 책장의 책들을 보고 있다.  
주방 쪽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는 인아가 보인다.

(상장) 문이 열리면 덕홍과 인아, 격렬하게 문이 열기 채 들어와 침대 쪽으로 직진한다.  
(현관) 문이 열리고 인아가 먼저 들어와 물통을 켜면, 약간 긴장한 덕홍이 따라 들어온다.  
덕홍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책들.  
책장이 두 벽을 메우고 있다. 덕홍, 신을 벗으면서부터 "와...",

### #6. 인아의 아파트 거실 INT. 밤

인아: 저희 집에서 커피 한 잔 하고 가실래요?

덕홍: 순간, 그녀는 하프라인도 넘기지 못한 공를 단숨에 문틈 앞으로 쫓아 넣었다.

인아: 덕홍씨!  
예?

음시에 부를 것 때문에 례이 잠깐 웃고는

덕홍/인아: (음시에) 자기.../덕홍씨,



물론은 일순!  
극중 감고 기다리던 인어가 턱끝에 조금 다가가 그 상황을 도와준다.  
일순과 일순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더 어색해진다.  
턱중, 용기를 내어 인어에게 일순을 기용한다. 하지만 완전히 다가가는 일순.

턱중 (스스로를 격려하듯) 노력중!

문밖도 못하고 앉아있던 턱중, 눈을 한 번 감았다 뜬다.  
더 할 수 없이 어색한 순간. 피할 수 없는 키스 무드.  
턱중, 인어를 살짝 본다. 말없이 앉아 있는 인어.  
그리곤 정적. 노래 자체가 끊어졌듯 이어졌다 한다. 자꾸 더 어색하게 만든다.  
턱중, 하하, 크게 웃는다. 인어도 웃는다.  
벨라폰테가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꼭 꼭 꼭 꼭꼭 우우우 --- 뽀로오오마'를 절규한다.

인어 (명량한 목소리) 저 가수... 배가 꾸북꾸북 한가 봐요.

애절한이 오버를 한다.  
음악이 전혀 어색함을 깨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해리 벨라폰테의 카네기 공연 라이브.  
턱중, 웅연히 흐르도록 커피만 마신다.  
(경과)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어색한 침묵. 띠 띠를 보다 눈이 마주치면 머쓱하게 웃는다.  
인어, 웃는다.

턱중 (어색함을 전환하려) 저 리월드 해롭니까? (귀엽게) 까득.

턱중, 밝히고 보니 더 어색하다. 커피를 흐르도록 마신다.  
그래도 어색. 다시 커피를 들이키지만 이미 잔은 비었다. 더 어색.

턱중 (화들짝) 아노, 아노, 좋은 댄세나요, (뚝) 인어씨관이.

인어 뚝은내 나요?

턱중 (영거주름 앉으며) 응. 흰색만 댄새가 나네요....

턱중, 문서리치며 헤벌쭙 웃다, 인어와 눈 마주치가 어색. 어색함을 무마하려

턱중 (흉내) 이샐! (귀여워 죽겠다는 듯 문서리)

인어 (책릉 다시 쫓고는) 이게 제 취미예요. (상큼) 이샐!

턱중 (미소)...

인어 1978년 6월 7일 저녁엔 비가 왔구, 지숙씨는 우뚝했대요.

#7. 인아의 아파트 칠선 INT. 밤

누 사람, 환상 정사 응, 그 와중에 눈물 번쩍 뜨는 덕훈에서,

덕훈 (겨우겨우 내뱉는 말) 그녀는.. 그녀는.. 황홀했다! 백만개의 불꽃만이 은물들  
(떨어들이는 것 같았고, 이백만개의 불기가 내 몸 전부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단성) 인적이 그닥처럼 아름다움 플레이를 하는 선수를 맡 적이 없다.  
창의적인 플레이! 현신적인 어시스트! (정사의 최정부) 그녀는 나를... (현i)  
나를... 최악~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만들었다!

(경과) 정사 후. 인아, 덕훈의 눈물 들여다보며 생글생글 웃는다.

덕훈 이상해요... 웬지 꼭 오를만함 기다려 온 거 같아요..

인아 크오. 듣기 좋다.

덕훈 진짠데.

인아 좋아요. 덕훈쨌 웬지 참 민아져요.

덕훈 정말요?

인아 (기분이 좋다. 힘 받아서 인아의 가슴을 만지다가) 아. 호. 온근한 거 있는데.

인아 원해요.

덕훈 인아씨, 미국에서 왔잖았죠?

인아 네.

덕훈 (호웃말) 그래서 그런가~?

인아 아, 원해요~?

덕훈 (대음) 인아씨 왜 부라자를 안하고 다녀요? 추상하게.

인아 (푸하, 웃고는) 추상하게?

덕훈 (명연하다는 듯) 네에.

인아 왜요?

덕훈 아니야, 단지 말이.. 그렇거든요.. 자꾸 보구.. 자기를끼리.. 내기누 하구...

인아 했네, 안했네... 내가 그랬단 게 아니라.

인아 (에 어르듯) 그래서 추상했어요?

덕훈 네에.

인아 (화단 흉내) 아. 정만 추상하네. (이물음 틀어 자기 가슴을 내려다보고)봐요.

덕훈 단 가슴누 작구요, 안 해누 돼요...

인아 귀요.

인아 푸하하하, 그래요? 그럼 할까요?

덕훈 (입술에 찹! 뽀뽀하며) 아노. 안 해누 돼요. (다시 입 맞춘다)

인아 (말으며) 맞아요, 원마나 텅텅한 테요.

덕훈 다시 또겨워지며, 사정없이 서로 입 맞춘느라 겨우겨우 새는 목소리로,

인아 오 만년 우 있죠? (또 만년 우 있죠?)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덕훈	덕훈

cut to 컵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두 사람.

정확하게 15시간 후 우리는 다시 만났고, 호으~ 연인이 되었다.

웹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리면, 장미꽃다발을 든 덕훈이 서 있다.

### S#8. 인아의 아파트 INT. 저녁

인아	인아
덕훈	덕훈
인아	인아

인아: 아. 동침을 까먹었네. 크호호. 뒤치기.  
 인아: 푸~. 멍!  
 인아: 왜.  
 인아: 그런 특정 제위잖아. 다시! 자. 하나~, 두롱~, 없아? 없나보네?~  
 인아: 에이, 난 있는데... 쟤! (만세를 부른다) 이겼다어!  
 인아: 지루 없으면서.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너도 하나 더 해야 이겨.  
 인아: 봐, 없지? 하나야, 두롱,  
 인아: 사랑.  
 인아: ...  
 인아: 마보. 봐, 이겼지? 자, 대.  
 인아: 티호, 어쩔 수 없다는 듯 똑바로 누워 눈을 감는다.  
 인아: (티호의 팔을 확 잡고 눈물 흘려다보며) 어떻게 사랑을 빼놓냐.  
 인아: 지루 쥔게 생각났으면서.  
 인아: 어니야. 제일 먼저 생각했어. 근데 자기한테 듣고 싶어서 참은 거야.  
 인아: 피.  
 인아: 자. 벌이다. 정말 동안 끈적없기다.  
 인아: 인아 림줄이 아직 귀에 끼어 있지도 않았는데, 티호, 벌써 몸부림을 친다.  
 인아: (물쭎) 질문! 자기 최고인 성적 환타지가 뭐야?  
 인아: 나?  
 인아: 아.  
 인아: ... 갑자기 몸으니까. 왜애? 만하면 들어주냐?  
 인아: 기꺼이. (뚝)... 없구나?  
 인아: (참) 없기는! 너무 편아서 그러지! 보자.. (생각한다) 환타지라~...  
 인아: 원론에 사정하는 거? 소리침? 강간하는 걸 들춰내어 게임? 애널 섹스?  
 인아: 모두 다 내 취향이 아니다...  
 인아: 음.. 자기가 위에 있고, 자기가 내가 모두 하려는 보는 자세?  
 인아: 그게 쥔 흥분될 거 같애.  
 인아: 이탈리안 샷리애?  
 인아: (그게 뭐야? 하듯 쳐다보면)  
 인아: 그거야. 이탈리안 샷리애.  
 인아: 단, 쪼그만게, 그 방면으로 부지 않다.  
 인아: 하이~, 그게 그렇게 흥분될까?  
 인아: 야하잖아.  
 인아: 야~하긴 한데, (상상해보거나 보다) 빠지는 게 문제네. (웃음) 편 건 없아?  
 인아: 있지!.. 음.. 그런 편이야.. 오렘은 오렘인데.. 그냥 오렘은 어니고,

근부시게 화창한 가로수 길은 걷는 두 사람. 덕후의 얼굴엔 행복이 물결.

S#9. 가로수 길 EXT. 낮

(인서트)시를아가던 잠미꽃다람이 영준 화--아 피어난다.

덕후                    사람! 그렇지! 그녀를 만나고서야 나는, 처음으로, 두 사람의 물이 만났을 때의  
 이 웅만한 기쁨이 췌스도, 정사도, 관계도, 췌도, 뺨도 아니고,  
 물물 먹는 것도, 막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랑! 임흥 임흥이다. 그리고...  
 (덕후이 예민하게 반응하면 "찾았다!", 좋아하느 인아...)...  
 내 품에 그렇게 많은 정감대가... 흠! 흠!

인아, 덕후를 아무하기 시작. 물에 뺨을 부비며 "아.. 좋아.. 까칠까칠해.."  
 물물 뒤리며, 행복해하는 덕후의 얼굴에서,

인아                    (덕후의 팔을 더욱 꼭 잡고는) 시작에 불과해. 30초도 안됐어.

인아, 양팔을 다시 잡고, 덕후에게 물물 기용인다. 물부림치는 덕후.

인아                    원문 문. 매!

덕후                    호~.

인아                    (웃음) 피~.

덕후                    (말론) 안 되긴! 나가 린 포르나블테, 기상침 뿔 번이나. 언제 공매냐, 비.  
 (장바를 폼) 카~, 이거이거, 린~씨가 안도와 주냐, 이거이거...

인아                    직이~. 안되겠네.

덕후                    완전 밖에서?

인아                    린이라고.

덕후                    밖에서?

                          그 비를 다 맞으면서... 크오.. 하는 거.

인아                    그래? 그럼.. 이걸 언제? 자기랑 하는데에~, 자기리양, 음.. 비오는 나랑,  
 덕후                    피~. (그러나 기쁨은 좋다) 아나아, 그래도 환타진네, 응?

인아,                    음... (배시지 웃는다) 자기랑.. 하는 거?

덕후                    직. 린은~. 못하면서. (인아, 웃음) 자긴. 자기 환타진 린데?

인아                    에이, 명색이 환타진네.. 바로 해버린 거 아깝지.

덕후                    해조.

인아                    어.

덕후                    진짜?

인아                    아아니, 하나도 안 이상해.

                          그 느린 그대~를 린어나는 거. 크오 이상하나?

.. 내가 잠들 때까지 그게 린속에 있는 거. 그러구 아침에 린어린 때느

인아: 선물이야. 나중에 후/  
 덕훈: 여 (바닥에 나뭇잎을 버리며) 뭐냐, 지금.  
 인아: (나뭇잎을 풀고는 명랑하게) 나, 자기 사랑하는데, 자기 가는 아니다?  
 덕훈: 하~.  
 인아: 단 자기 구속할 생각 없어, 나도 구속당하고 싶지 않구.  
 덕훈: (속 터진다) 그래야, 근데, 지금 우리 사랑하잖아, 응분희, 근데,  
 인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잖아.  
 덕훈: 그래야, 미래를 누가 아냐, 그치만 어떻게...  
 인아: (끝물터져) 벌써부터 헤어질 생각부터 하나?  
 인아: 자기랑 헤어질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덕훈: 뭐, (이건 또 뭐야.. 하다가) 잠깐, 잠깐, 잠깐, 지금 너 란은

덕훈, 애가 지금 이 애길 왜하나, 하는 표정.  
 인아, 나뭇잎을 덕훈 손에 뽐겨 놓으며

인아: (나뭇잎을 하나 따서는) 사랑하다가 누군가 먼저 마음이 쇠잖아?  
 덕훈: (누 손에 나뭇잎을 물려 덕훈 앞에 내밀며) 그렇게 헤어지고 싶잖아?  
 인아: (가만히... 나뭇잎을 내민데, 나에게는 당신이 이렇게 가벼워졌어요...  
 덕훈: 그런 상대는 그 뜻을 알고는 말없이 떠난대.

인아: 이 지구상에, 아직도 얼마나 연애를 하는 종족이 있네.  
 덕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살구, 식으면 헤어지구, 또 사랑하는 사람만  
 인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헤어지구... 가끔, 평생 한 사람하고만 사는 사람도  
 덕훈: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십프로도 안된대.  
 덕훈, 무슨 돈급없는 소리가 싶지만, 인아에게 편려가듯 결으며 일단 듣는 중.

덕훈, 포옹을 풀면, 인아가 덕훈 옆론를 빼히 들여다본다. 할 수 없는 미소.  
 인아, 덕훈의 팔짱을 튜렷하게 끼고 앞으로 걷기 시작한다.

덕훈: 내, 끼.

덕훈, 인아를 가만의 포옹한다. 인아도 활짝 웃으며 덕훈을 꼭 안는다.

덕훈: 사랑해.  
 인아: 나, 누.

인아, 덕훈을 잠시 세우고 쯤그리고 앉아서 풀린 덕훈의 신발 끈을 매준다.  
 인아의 행동은 별다른 의미 없이 명랑한데, 그 모습을 보는 덕훈의 표정은 감격에 찬다.  
 인아, 원아서는데, 덕훈의 표정이 너무 감개무량이라, 왜? 하고 묻듯이 쳐다본다.

인아, 액정을 빼히 바라보며, 리드미컬 하게 말한다.

S#12. 덕후의 상상/ 어딘가 클럽 INT. 밤

벨소리 이어지는 가운데, 잔뜩 열 받은 표정의 덕후가 핸드폰을 들고 있다. 순간, 어딘가가 인아의 벨소리와 그 소리를 따라 허밍하는 인아의 노랫소리 들린다. 그나마 여유있던 덕후의 표정에 짜악 금이 간다. 타다다닥 다시 전화를 거는 덕후.

S#11. 덕후의 총각시절 밤 INT. 밤

덕후, 기분 좋게 전화를 건다. 벨소리 들어가기가 시작한다.

덕후

(피식 웃듯) 지만 순해지.

인아가 쓴 나뭇잎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덕후. 심란하던 표정이 스승 가버워지더니 빙그르 웃음까지 머금는다. 나뭇잎, 책 사이에 넣고, 탁 소리 나게 떨어뜨리며,

S#10. 덕후 회사 INT. 낮

덕후, 돌아서서 적벽처럼 걸어간다. 인아, 쪼르르 따라붙어 팔짱을 끼면 덕후 뿌리친다. 인아, 아랑곳없이 덕후에게 따라붙어 팔짱을 끼는 게 멀리 보인다.

덕후

응.

인아

이씨! 봐! 내가 자린 사랑하지 않는 거 관애?

덕후

(뿌리친다) 뻔뻔는 무슨!

인아

(애교있게) 뻔뻔!

덕후

(기가차단 듯이 묻다) 허~ 허허.

인아

응. 자기가 너무 좋아..

(따진다) 사랑한다며, 나랑 하는 게 환타지라며~, 아냐? 그랬든 게 너 아냐?

덕후

드름? 허. 드름? 와, 애 아주 웃기는 애네. 나... 참.. 참.. 참다, 참다..

인아

(나뭇잎 끝을 덕후 주머니에 넣고) 사랑하구 싶은 사람들을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거냐? 나 만나는 동안?

덕훈, 간센다. 윤연희 인어를 노려본다.

인어      그믐 뜰 왼쪽 오지. 침실 칸이 벽계. (시계를 보며) 얼마 늦지도 못하겠다.

덕훈      (또 반응 보며 유도하듯) 여자야아~ 남자야?

인어      응.

덕훈      그렇지! 아. 그냥 좋아하는 사람.

인어      근데 누구양?

덕훈      쿵?

인어      (선선히) 그래. 그믐.

덕훈      응. 매번 거칠하기도 뭐하고. (인어의 반응 참된다)

인어      (실망) 약속 있어?

덕훈      아. 저녁엔 시간이 안되겠더라구. 톨튼 거짓말이다.

인어      웬일이야? 낮에 전화를 다하구.

어색하게 웃는 덕훈. 인어는 새클새클.

S#14. 찾침 INT. 낮

확 끊어버린다.

덕훈      ... 뽀수 너 떠바... 니가 구하기로 해짜나아!!!

뽀수(B)      아. 한국전 포 구했어?

공간 울리는 벨. 후다닥 받으면

덕훈      (버럭) 맘대로 해라 이거다! 누가 상관이나 한대냐!

덕훈, 완전히 얼 받았다. 핸드폰을 침대에 던지고 거칠게 컴퓨터를 켜다.

전원이 꺼져있다는 안내음.

S#13. 다시 덕훈의 침 INT. 밤

인어      안 받아주 왜요!(벨소리)!(벨소리 그치면) 클났다! (또로로 전원을 끈다.)



덕훈 결국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강하게 소리칠) 어니니! 사랑한다!  
 (다독인다) 친척하자.. 노력중.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미끄럼틀을 위. 정좌하고 앉아 인아. 정 좌를 노력하는 덕훈.  
 못 참겠다는지 전화를 건다. 걸고, 걸고, 또 걸고, 또 걸고, 문자도 푹푹푹 찍는다.  
 하는데, 누군가 걸어오는 기척, 헤들아보면 인아가 어니다. /

덕훈 (탐탐음 소리에 맞춰) 맘.매.로.하.라.이.겨.다.아~

뽕이 죽어 건고 있는 덕훈.  
 문 포스트 앞을 지나가면, 꼬마들이 잔 문이 넘어온다.  
 반사적으로 문을 쳐내려는 덕훈, 어렵했다. 문이되는 문.  
 덕훈, 헬고개를 틀어 위를 보면, 인아의 아파트 창문이 보인다.  
 반. 어딘가를 노력하고 있는 덕훈.  
 덕훈 시선이 머문 곳은 볼 꺼진 인아의 아파트 창문.  
 덕훈이 앉은 곳은 볼이 더 미끄럼틀을 위. 쪼로쭈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다.  
 다시 탐탐음 계단을 오르며,

덕훈 전화를 기다리는 것도 나... 기다림의 고통도 오려, 나만의 것...  
 계층에 지친 것도 나였다.

덕훈의 옆문에 이는 짙은 그리움. 고통.

S#15. 인아의 아파트 단지 내 축구장이 있는 블이더 EXT. 오후/밤

덕훈 (가오가 있지) 아이다. (아이스타가 도착한다) 마셔라.  
 인아 (친잔만)응?  
 덕훈 (벼력) 미쳤나, 까진테다 뭐하러 여러번 하냐?  
 인아 많이 했었어?  
 덕훈 전화했었는데 꺼져 있데...  
 인아 두 있구 여자두 있었어.  
 덕훈 누구랑? 남자랑?  
 인아 아냐, 어제 그렇게 늦게 안 왔어. 2차까지 가긴 했는데.  
 덕훈 저기... 근데, 자기 어제 늦게 왔나 봐?

... (술자 운시럼) 내 먼저 전화하면 나 우리 엄마 아들 어니다.

인아: (화가 나서 자기 전화가 뺏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덕훈: (기공이 쭉 빠져서 자기 전화를 꺼내) 봐. 9시 30분 인아, 9시 35분 인아, 9시 38분 인아. 10시 21분 인아... 다 아다 잤어. 변호가.  
 인아: (한심한 듯 쳐다보며) 발신자 표시 안 하나까 없지.  
 덕훈: (허탈하다)... 왜?  
 인아: 받기 전에 누군지 다 알면 설레임이 없으니까.  
 덕훈: 하... (궁색하지만 열 받으니) 그래서 전화를 아예 끄냐?  
 인아: 사람을 만나면서는 계속해서 편 전화 받구, 지나간 전화까지 인원이 많하구....

덕훈, 인아 손에 들린 핸드폰을 빼앗아 확인하는데, 큰 표정이 멍해진다.  
 보면, 수신번호가 하나도 없다.

인아: 자기이! 웬일이야? 이 시간에?  
 덕훈: (다짜고짜) 내 전화 왜 쳤냐.  
 인아: 전화했어? (덕훈이 노력보자) 많이 했어?  
 덕훈: 와... 이게 진짜...  
 덕훈, 인아 손을 뽐봐 두드린다.  
 인아: 인아, 문은 열어 두드린다.  
 인아: 문이 열리면, 숨이 거의 갠 인아, 덕훈을 보고 조금 놀라는 듯하지만, 큰 반감에 맞는다.

S#16. 인아의 아파트 INT. 새벽

덕훈, 완전의 평정을 잃는다. 미끄럼틀에서 우당탕탕 내려온다.  
 덕훈, 완전히 미쳐 버린다. 동행이 있었던 듯, 택시 안을 보고 뭐라고 하는 듯하다.  
 덕훈, 눈에서 물뚝이 뚝뚝 떨어진다. 택시 출발하고 인아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인아(B): 저희 집에서 커피 한 잔 하고 가실래요?  
 덕훈: (눈물 번쩍 뜨며) 이런!  
 덕훈: (빠르고 냉정하게) 하지만...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정말로 나'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며, 잘 헤어, 나'도' 사랑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상상 인서트/정중침>  
 인아: (포한 미소) 저희 집에서 커피 한 잔 하고...//  
 덕훈: (눈 뒤집어 진다) 이런!

덕훈, 평정을 되찾으려 눈을 감는다. 순간, 어디선가 들리는 인아의 목소리,

덕훈

(스마트에게 화가 난) 병신! 쪼다새끼!

덕훈, 돌아서 나온다. 인아 쥘 폰이 단한다.  
사람이 조용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무거운 표정의 덕훈.  
땀! 엘리베이터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빈 복도에 울린다.  
결연한 표정의 덕훈, 마상 엘리베이터 폰이 열리지,  
그래도 뭔가 미련이 남는 듯 인아 쥘 쪽을 한번 돌아본다. 미움도 없이 단해 있는 폰.

덕훈

...나... 너... 무섭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헤어지자.

덕훈, 순식간에 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배신감과 최탈함으로 얼굴이 일그러진다.  
를릴듯 를릴듯 "그래놓구... 어떻게 그래놓구..." 하다가 곧 응얼거릴듯 그친다.  
그렇게 말없이 들춰림 한참을 서 있다가, 더 이상의 추궁 없이,

덕훈

(말안하듯) 잤어?!!! 그 새끼랑 잤다구?!!!!

인아

.....

덕훈

(후덜덜한다) 뭐?

인아

잠도 잤어.

덕훈

... 그랬잖아, 풀만 마셨나? 여태?

인아

풀 마셨어.

덕훈

그 새끼랑 뭐했냐.

인아

(어떻게 그런 걸 물어..? 하듯이 본다)

덕훈

(힐 빠진다) 나 니 애인 맞냐.

인아

그래.

덕훈

(노려본다)... 풀이?

인아

오름은 담자랑만 있었다구.

덕훈

뭐?

인아

담자랑 있었어.

담자랑 있었나면, 담자누 있구 여자누 있었다 그럴 거구,

덕훈

아니다. 뭐했냐면 풀 마셨다, 그럴 거구,

인아

(화났다) 그래서?

오름은 친칠름 알아야겠다. 뭐 했냐, 지금까지.

덕훈

어떤 미친 똥이 먼졌냐.

허구한 똥이 되게 풀 먹여, 꼭두새벽에나 집에 오는 여자를

인아

(덕훈을 보고) 이럴 거면서 똥 민는다는 거야?

덕훈

(화를 쫓누르며) 그래, 문자는 민았을 거 아니냐.

인아

비꼬지마. 화날려 그래.

덕훈

... 민 잘해... 멧~있어...

그게 더 지나친 거 아냐?

별수  
덕훈  
별수  
덕훈  
별수  
덕훈  
별수

년 개가 좋고.  
(침묵, 그릴단 소리)...  
(짜자자 작작 박수치며) 개도 나가 좋고?  
(침묵, 그릴단 소리) ...  
객관적으로 말해라. 회만 섞지 말고.  
(오르렁) 새끼가.  
근데 잡히지가 않는다.

한국 대 포르투칼전이 한창이고 관중석 붉은인파속 덕훈과 친구 별수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은 덕훈의 얼굴, 응원 따라 하기도 벅하다.  
함께 어깨를 끼고 박자를 맞추며 울레울레울레울레-----

S#19. 축구 스타디움 EXT. 밤

한편 호른은 곧뚱 땀수린 않는다. 덕훈, 공전에 그냥 놓아버리는 모양.

별수(E)  
덕훈  
별수(E)

아이야- 형님이 누구냐! 포르투칼전 구했다. 노덕훈!  
(우는 소리) 호아아.  
너... 우냐? 새~끼, 간격했구나!!

덕훈의 눈에 눈물이 쫘러더니, 불을 타고 주불뿔 흘러내린다.  
순간 울리는 진화벨, 주석주석 반으면,

덕훈

...씨랄...

터벅터벅 걸어오는 덕훈.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아파트로 들어서다 턱에 걸려 넘어진다.  
무지 아를 텐데, 한참을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는다.  
진짙히 하늘을 향해 돌아보는 덕훈.

S#18. 덕훈의 옹가시절 집 앞 EXT. 밤

학자한 회사 들어가리. 사람들과 상관없이 덕훈, 맥주를 들이킨다. 디들브.  
혼자 남아 의사 뒤로 몸을 쫓히고 들어진 파견지처럼 맥주를 마시는 덕훈.

S#17. 회사 앞 카페 & 바 INT. 밤

단호하게 엘리베이터에 탄다. F.O.

인아 인아 (고개를 젖는다)  
 덕훈 맞아. 셋 다 아니야. (뚝) 다시 하자해.  
 근데 웬지 덕훈쨌 셋 다 아냐 거 관아서. 아냐거?  
 새로 만난 여자랑 뭐가 관 안 되거나? 아님, 관이 관 여자가 필요하거나...  
 인아 남자들이 헤어진 여자한테 연락하는 건...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덕훈 왜..오? (반말로 다시) 왜?  
 인아 덕훈씨한테 연락을 진 물렸는데, 의외예요.  
 인아와 마주앉아 있는 덕훈. 인아, 무지 화사하다.

S#20. 찻집 INT. 오후

관중석 함성으로 난리가 나고 병수와 덕훈, 열쌍 안고 좋아 죽는다.  
 서로 불렀을 부비다 입이 뚱고 찻집.

덕훈/병수/관중들 (확 솟구치며) 클린-!!!!

덕훈도 덤탕아 어, 어, 어 하는 사이  
 박지성의 룬이 네트를 가른다.

병. 중. 별. 격. 진. 리. 임. 마. 새. 끼, 철. 학. 권. 운. 이... 어. 어. 어. 어.  
 (파도타고) 헬. 모. 양. 처. 이. 런. 켄. 학. 자. 들. 은. 그. 뭐. 라. 그. 러. 는. 지. 아. 니. 야?

덕훈 ?(파도가 온다)

병. 수. 너. 어. 릴. 때. 준. 나. 룬. 든. 애. 들. 이. 나. 우. 에. 드. 면. 뭐. 가. 되. 는. 지. 아. 니. 야?  
 철. 훈. 하. 구. 애. 나. 봐. 지. 가. 어. 디. 가. (미. 신. 역. 은. 표. 정. 의. 덕. 훈. 을. 보. 고. 는)  
 병. 수. 단. 여. 자. 에. 대. 한. 그. 환. 상. 과. 준. 경. 을. 버. 려. 여. 자. 다. 거. 기. 서. 거. 기. 야.

덕훈 뭐?

병. 수. (삼. 각. 하. 네. ~, 하. 는. 표. 정. 으. 로. 덕. 훈. 을. 보. 다. 가. ) 범. 범. 없. 네. 철. 훈. 해. 버. 려.  
 덕. 훈. 이. 켄. 끼. (하. 다. 가. 반. 사. 적. 으. 로. 지. 나. 가. 는. 파. 도. 타. 기. 맞. 추. 다.)

병. 수. 나. 한. 테. 마. 음. 없. 네. 우. 담. 아. 나. , 덩. 겨.

덕. 훈. (기. 계. 적. 으. 로. 박. 수. 치. 며. 눈. 부. 라. 림. 으. 르. 림) 우. 담. 할. 여. 자. 아. 니. 라. 고. 했. 다.

병. 수. 덩. 겨. 대. 한. 민. 국-

덕. 훈. (버. 려) 몇. 번. 을. 말. 해! 환. 건. 에. 헤. 어. 지. 셧. 다. 니. 한. 탄. 체. 전. 화. 한. 을. 없. 다. 니. 까. 어.  
 병. 수. 연. 락. 도. 없. 고.

덕. 훈. , 병. 수. 다. 따. 라. 하. 며. 틀. 들. 이  
 아. 깎. 다. 는. 장. 탄. 식-순. 간. 다. 관. 이, 대. 에-한. 민. 국! 짜. 자. 자. 작. 작!  
 응. 원. 단. 진. 정. 하. 며. 앉. 다. 말. 고. 와. 스. 리. 치. 며. 일. 어. 서. 면. 덕. 훈, 병. 수. 관. 이. 와- 일. 어. 서. 다. 가.

덕. 훈. (그. 룬. 단. 소. 리)...



인아, 어찌구나 없다는 표정으로 덕훈을 본다./

덕훈 (림을 맴뚱이 칸이) 결혼해. (하고는 다시 커피를 마신다)

덕훈, 두 손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인아, 역시 포 덕훈의 귀에서 손가락을 빼내면,

S#22. 구혼의 물타자/ 인아의 아파트 INT.

뿌지적 시원하게 웃는 인아.  
한 나오던 음악이 스크레치 나는 소리

인아 (귀엽다는 듯이 보다가) 근데 두 사람 이혼했다?  
그래서, 물이 결혼했잖아, 장장 스무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구.  
저 노래 만든 사람이 서른 여덟살 때 열 여덟살 처녀한테 반해서 만든 노래잖아.  
'또거공 태양도 내 사랑을 마르게 할 수 없어요. 내 사랑은...'

덕훈 (우췌) 모자르지~. 너, 이 노래 가사 알아?  
인아 그럴 한 거네.  
덕훈 결혼이 별거야? 좋은 사람끼리 칸이 사는 게 결혼이지.

인아 푸. 무슨 결혼를 해.  
덕훈 해.

인아 ? 액?

덕훈 (머뭇) 결혼해.

두 사람 꼭 껴안고 서로를 사랑스러워 죽겠다고 바라보며 닭살스런 포옹.

덕훈 (애가 우기듯) 난, 진짜 사랑해.

인아 (덕훈의 눈에 입 맞추고 가만히) 사랑해.

덕훈 난 나 때문에 공적 없잖아.

인아 뭐가야.

덕훈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인아 으이구...(하면서) 칸이 큰췌

덕훈 (다시 누르륵 눈물) 죽.원.려.

인아, 덕훈을 가만히 안는다. 덕훈도 인아를 꼭 껴안는다.  
때 맞춰, 연,은, 원,원하게 울리고  
덕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인아가 외아하게 바라보면

인아 (웃음) 자기 넘어지니까 가슴이 찢~렁 하더라. 휘이~, 마음 아프고.

인아    뭐, 맨날 술 먹지~?  
 덕훈    (커피를 마시고 앉은 채로 호기롭게 맞장구) 괜찮아아~.  
 인아    늦게 들어오지~?  
 덕훈    괜찮아아~.  
 인아    (들) 외박누 하지.  
 덕훈    형 (매달 매신 침을 한번 삼킨다. 역지로 괜찮아,라고 말하려는데)  
 인아    (진지) 봐. 맘 식으면, 미워하게 될 거야.  
 덕훈    (커피서 손 빼고 괜찮게) 알아, 알아, 내가 그런 생각누 안하구, 이려겠니, 지그응?  
 덕훈, 다시 커피를 마신다. 기가 차다는 듯한 인아의 시선에도 개의치 않는 표정에서,  
 덕훈    그런 것 따위 상관없어졌나고? 천만에.  
 결혼이란 연애의 무덤이라 말한다. 기꺼이 동의한다. 너를 연애의 무덤으로  
 데려가리라! 너의 다들 연애들을 죄다 무덤 속에 묻어버리리라.  
 덕훈의 나레이션 흐르는 동안 인아가 거절하는 연속 컷이 지나간다.

덕훈    (멍뚱이 관이)결혼해.  
 인아    줘야.  
 덕훈    결혼해~.  
 인아    안해~.  
 덕훈    결혼해. (예상하고 있다는 듯 바로 이어 일모양으로 여유자작, 줘야~)  
 인아    (덕훈의, 줘야'와 동시에) 줘야~ /

다른 란. 계속 구혼중인 덕훈. 거절하는 인아.

인아    오죽하면 침시들은 결혼할 때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여자를 떠나겠습니까. 그런 서약을 한다면.  
 덕훈    당신이 침시야?  
 인아    내 꿈이 뭐게?  
 덕훈    ...?  
 인아    객사.  
 덕훈    객사야?  
 인아    응. 객사. 밤새도록 술 먹구는 해뜨기 전에 죽는 거야.  
 덕훈    침시를 관이, 권바닥에서.  
 (쿠당)...

덕훈    사전공약도 남발했다. 풀한 남편이 되겠다고 했다.

다른 란.



2002년 월드컵. 스페인 전. 시정 앞을 가는 메콩 불은야마들.  
 승부자기. 한 문 한 문 지만 때 마다 사람들, 서로를 알아 안고 환호한다.  
 세 번째 키켜. 원기힘의 문이 들어가자,  
 득점과 어떤 여자, 서로를 알아 안고 좋아한다.  
 네 번째 키켜 안정환의 문이 들어가자,  
 인아와 어떤 남자, 서로를 알아 안고 좋아한다.  
 마지막 키켜, 올림보가 문 앞에 서 있다.  
 승막히는 긴장이 흐르는 공중.. 그 속에 간헐하다 간헐한 표정의 득점.  
 올림보의 문이 네트를 가른다.  
 호이어! 환호성을 지르며 득점과 인아, 서로를 알아 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환상만큼 정신없이 좋아하는 후, 득점이 인아를 가만히 본다.

S#25. 시정 앞 광장 EXT. 저녁

인아 (옆에 들렸다) 자기...  
 득점 (인아를 번쩍 들어 안으며) 봐! 어쩔 뻔 했며. 아무도 없는 밤에 서어~.  
 인아 (다 죽어가는 북소리) 안돼.  
 인아, 혼자서 앓고 있다. "출병이 걸린 거야" 너스레를 떨며 들어오는 득점.

S#24. 인아의 아파트 INT. 낮

인아 (다짐하듯) 안돼.  
 득점 고지가 보였다.  
 인아 (술이 뿜었다) 사원은, 사원은, 잔 들어, 노덕호씨야, 나두우~, 사원으~, 결혼이란 걸 생각 안해본 게 어딘데. 근데에~,  
 인아 이틀리아 전릉 보고 있는 뜨거운 열기 속에 득점과 인아.  
 안정환의 문은 문이 들어가간다!  
 환호와 함성과 눈물과 쏟아진 맥주. 부둥켜안고 뺨고 우는 득점과 인아./

S#23. 스포츠바 INT. 밤

점시의 서약도 했다. 허자는 대로 다해준다고 했다.

인어

~이

덕후

(형!) 비?

인어

~이~ 비궁다구~

덕후

응?

인어

(원진에게)~. (장난스런공근함) 자기이, 비와~.

덕후

(수건으로 인어의 젖은 머리를 털어주며) 너 이런 거 닮잖아?

인어

큰내썩! 빗방울이 두두두두. 완전 뽀뽀개 벗고 비 맞는 기분이야.

인어, 우비 똑딱 단추를 하나하나 푸는데, 세 개를 풀도 풀 계속 맨날. 물품에 우비만 입고 나갔던 모양. 덕후,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인어

(배사시 웃고는) 이거 봐라?

덕후

오아.. 물!

덕후, 현관문을 열면, 뽀뽀 젖은 우비를 입은 인어가 환한 얼굴로 들어온다. 현관에서 물은 흔들어서 물은 털면 머리에 떨어지는 물방울.

덕후

귀여운 나의 아내.

우비를 입고 아파트 단지를 웅웅웅 걸어들어오던 인어, (여보오~! 부트는 소리에, 위를 보고 두 팔을 늘어 손흥 흥 든다.

덕후

(아래를 보다 반장게) 여보오! 여보오!

덕후

나의 저를 두 손 여들을 행복하게 하던 세 가지... 하나,

베란다를 통해 밖이 시원하게 소나기가 내린다.

S#26. 덕후의 (신호)아파트 INT/EXT. 낮

덕후

면보했 고맙다.

사람들은 정선없이 움직이는데, 두 사람 사이의 시간만 정지한 듯. 인어의 표정이 전에 없이 진해진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진 표정이다. 덕후를 가만히 응시하던 인어, 결심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가락을 덕후 내민다. 덕후, 인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준다. 따듯하게 서로를 응시하는 두 사람. 하늘엔 축하와 기쁨의 폭우가 쫓쫓 터진다. F.O.

덕후

(반지함을 가만히 내민다) 결혼해줘.

인아      찾아~. 디 스테파노는 50년 전 얘기고, 20년 전애두, 8년 전애두 바르샤가  
 덕훈      그리구 또오, (7)역이 안난다) 뭐지? 암튼 7년 전애두 오대 뺨으로 이겼지이.  
 인아      레앙이 이긴다니까. (활활) 디 스테파노 데뷔전 때 오대 뺨으로 이겼지,  
 덕훈      웃겨야, 바르샤는 더 이겨.  
 인아      (인아의 맘에 아랑곳없이) 봤지! 바르셀로나의 신념이 뭐든 간에 레앙이 이겨.  
 덕훈      곧 좋았네.  
 인아      봤지! 봤지! 봤지!

레앙의 호나우두가 선제골을 넣는다. 덕훈, 벌써 일어나 만세를 부르며 흥분.

인아      아.아.아.아!  
 덕훈      세엌, 모두 잠든 새벽, 귀여운 아내와 함께 보는 환상의 축구경기...  
 (인아의 웃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조물락대며) 아호.. 이 맛.

인아의 무릎을 베고 누워 흥미진진 관전 중인 덕훈이 보인다.

덕훈      두롱, ... 모두 잠든 새벽, 환상의 축구경기.

TV. FC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장면.

S#27. 덕훈의 (신혼)아파트 INT. 밤

인아, 덕훈의 름을 보고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린다. 덕훈도 따라서 웃는다.

덕훈      아~. 진짜~, 왜 또 그치고 그래~.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진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든다.

덕훈      (창밖을 보더니 활짝) 이! (창밖을 가리킨다)

인아, 다시 웃음 베풀고 우미를 걸친다. "까짓 것 뭐!"하고 호기를 부리는 덕훈.  
 인아가 우미 똑딱 단추를 똑.똑.똑. 채우기 시작하자, 걱정이 물려오던 채,

인아      (여전히 뻔히 보며) 그래?  
 덕훈      좋기는! 누가! (인아, 웃음을 참으며 뻔히 쳐다보자) 기! 덩벼! 당장에 하자구!  
 인아      (놀리듯) 예예? (웃! 웃고는) 좋았다!  
 덕훈      (혀) (혀)  
 인아      (고개 끄덕)  
 덕훈      (편 더듬는다) 지, 지금?

오 대 뺏으랴 이겼어. 레알이 인상적으로 이긴 적이 있긴 있지아.  
 1943년 올롬배 준결승에서 11대 뺏으로 이겼지. 안보부장이 라커플까지  
 들어가서 선수들 협박해서. 그런 건 좀 빼야되지 않겠어?  
 다 빼도 전적상 레알이 더 좋아.  
 역대 전적은 분명히 바르샤가 앞서네.  
 진짜야?  
 진짜.  
 후회안하잖아? 이 타임에 내기 들어간다?  
 뭐. 우리 또 받아줘야 매너지.  
 얼마!  
 바르샤가 쥘린 문체에 돈은 좀 불경하고.  
 좋아, 그럼. 소원 들어주기도. 뭐든?  
 좋아. 지단을 걸구 들어주는 거다.  
 바르샤를 걸구 들어주는 거겠지.  
 좋아. 자, 까봐.  
 (회심의 미소. 자신만만) 나, 그야 팬 아니냐. 지금까지, 레알하고 바르셀로나하고  
 143번 맞붙었어. 승패는, 63승 25무 55패. 물론 63승이 레알 거지.  
 장장 8승이나 앞선다고. (의기양양) 됐지?  
 맞아. 근데 그건 포리메라리가 전적이네.  
 (영?) 뭐?  
 시합이 포리메라리가 밖에 없냐? 스페니시 컵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있고,  
 친선경기도 있고. 그건 경기 아닌가? 모든 경린 다 합치면,  
 지금까지 바르샤하고 레알이랑 한 시합은, 143 경기가 아니고, 221경기네.  
 그리고 전적은 바르샤가, 92승 46무 83패로 앞서 있다고. 됐어?

덕후, 뽕짜름 끼고 으. 쿨 먹은 범아리.

인아  
 됐지? (웃음이 비껴 나온다) 우히히~.  
 소원이 뭐냐.  
 판 단단히 먹어. 큰 거니까. (생각 후) 에이, 지금은 없다. 저금!

인아  
 덕후, 응으면

인아  
 저금했으니까 이자도 볼는 거다. 무조건 들어줘야 해. 나중에.  
 람했다.

인아  
 지단 걸었다. (확인) 꼬응. 약축!

인아  
 둘이 손가락을 건다. 바르셀로나의 루이스 엔리케가 동점골을 터뜨린다.

인아  
 (옆면 인아나) 봤지봤지봤지!

인아          자자. 내가 재워줄게.

                덕후, 기운이 빠진다. 곧두섰던 신경이 풀리고, 큰 타박하듯 웃고 만다.

인아          (몸.. 배시시 웃는다) 안주도 먹었지. 혜.  
 덕후          (혀.) ...!  
 인아          아니.  
 덕후          그래. 진짜 슬만 마셨어?

                노!

인아          라고 싶어?

                정말 슬만 마신거야?

                음.

                관하진!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한거야?

인아          네 시 반! 할증 끝나자마자 총알처럼 털려왔지.(아랑곳없이)히~. 참했어?

                (뿌리치며 버럭) 지금 몇 시야!

                덕후          떠월 때도 있다.

인아          (덕후를 안는다) 자기야~. 히이~.

                (혹 끼치는 돌 면세, 인상 구리며 노력한다)

                (덕후가 안자고 있자 반가워한다.) 자기야!

                옆에 들어가자는 소리 들린다. 문이 열리고 인아가 들어온다.

                다른 램 새벽. 네시 삼십오분. 옆 받음 표정의 덕후가 현관문 앞에 버티고 서 있다.

                나? 보시다시피. 가능한 한 모를 척했다.

                어내는 여전히 가끔씩 진화를 받지 않았고, 때때로 새벽에야 들어왔다.

                옆에 들어가 마부를 가로챈려 밖으로 오는 소리 들린다.

                옆으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옆은 스탠드를 끄고 자는 척.

                ... 내가 나만을 사랑하는 것.

                덕후, 눈을 민똥민똥 뜨고 꿈하게 누워있다.

S#28, 덕후 아파트 INT. 다른 램 새벽

                내게도 소원을 물어준다면, 당장이라도 탈환 수 있는데.... 내 단 하나의 소원.

인아      덕훈  
 안돼.  
 인아      덕훈  
 (시무룩) 맞아. 돈 때문이 아니야. 맨날 영업 프로그램이 단순한 거만 하구~  
 근데, 이번 건 완전히 달라. 건축 설계용 프로그램이라 훨씬 자유롭구,  
 창의적인 인이야. 생각만 해두 신난단 말이야. (똥) 자기이,,,응?  
 인아      덕훈  
 당신은 겁 관은 거 안 산다며.  
 인아      덕훈  
 페이누 무지 쉘데...  
 인아      덕훈  
 안 돼.  
 인아      덕훈  
 1년.  
 덕훈      인아  
 (오히려 못 참고) 얼마나 걸리는데~.

참자크 원면터스럼게 앓아 있는 인아. 잠시 정적.

S#30. 포장마차 안 INT. 밤

인아      덕훈  
 (순순히) 알았어. (쪼르록 포장마차로 들어간다)  
 덕훈      인아  
 (소리없이 숨들이 마시고) 안 돼.  
 인아      덕훈  
 응. 쫓 멀어. (똥) 경주.  
 덕훈      인아  
 안 좋은 거?  
 인아      덕훈  
 다음 번부터. (똥) 근데, 쫓 안 좋은 게 있다?  
 덕훈      인아  
 관 됐더~. 언제부터 나가?  
 인아      덕훈  
 나 다시 일하게 됐어.  
 덕훈      인아  
 좋은.(한없이 다정)원태에?  
 인아      덕훈  
 자기, 나 좋은 일 있다?  
 덕훈      인아  
 근데 왜 포장마차 병개?  
 인아      덕훈  
 관해며~.  
 덕훈      인아  
 (입간) 하~. 1차만 하고 바야로 달려왔쎬.  
 인아      덕훈  
 (생르생르) 아.. 둘 번째..

최근하는 덕훈과 마중 나온 인아, 뿔뿔 떨어져 안기고 뿔뿔름 끼고 걸으며,

S#29. 덕훈 아파트 근처 가로수길 EXT. 밤

덕훈      인아  
 이상한 판이지만 아내를 먼저 못함수록 나는 더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인아      덕훈  
 참매. 덕훈의 어깨에 머리를 대고 가슴을 토닥이는 인아. 마치 아무 일 없름 거라는 듯.

활짝 핀 연꽃로 바람처럼 달려오는 덕훈,  
를 꺼진 창문틈 보더니 더욱 더 활짝 핀다.

S#33. 덕훈 아파트 앞. EXT. 저녁

부장, 약간 불만 등. 가보라는 손짓.  
덕훈, 예의바르게 꾸벅 인사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오더니 곧바로 뛰기 시작.

덕훈 (말도 큰나기 전에 서류를 한 장 던져 손으로 책 가리키며) 여기.  
부장 세일즈 프로젝트 기획안/  
덕훈 (두 번 째 서류철을 책 내밀며) 여기.  
부장 신도시 증산출 블루마켓 분석 나왔나?

부장 책상 앞. 활짝 핀 연꽃의 덕훈, 활기차게 서류를 내민다.

S#32. 덕훈 회사 INT. 저녁

덕훈, 걱정 가능한 연륜. 하지만 이미 버티긴 체념한 표정이다. 활기찬 음악이 터지며

덕훈 못 민이서만은 아니었다. 아내가 없는 집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근목의 기운이 다 빠지는데... (호소) 이런 날보고 어쩌라고요!

덕훈 자기이, (물아누공 덕훈 쪽으로 연꽃을 들이밀며) 양보다 권. 응? (똥) 응?  
인아 (단호히) 고개를 끄고 돌아누우며) 물라.

밥. 침대에 누워있는 덕훈에게,

인아 (활짝) 문제없이, 봐봐? 어차피 우리 약속이다 뭐다 해서 일주일엔 두 세 번은  
덕훈 (따진다) 그럼 뭐 우린 언제... 응? 그러구...응?  
인아 (애절한) 응?  
덕훈 (단호한)..  
인아 응?

인아, 들근 준비하는 덕훈에게 쫓르르 따라붙어 다니며 섯둑,  
활짝 핀 덕훈의 발음에 물라라고 걸음마를 하며

S#31. 덕훈 아파트 INT. 아침/밤

인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듣지 못한다.

덕훈

(다정하게) 자기이.

침대 밑에 앉아 텅빈한 문틈 구멍이 있는 것같은 덕훈의 몽롱한 표정. 시선은 관공비를 하며 욕선과 화장대를 오가는 인아를 따라 다닌다. 문틈 밑추려고 하지만 인아는 야속하게 자기 일만 한다.

S#35. 덕훈의 아파트 INT. 밤

덕훈

아 내 생애 꽃 같은 불타

요리하는 인아를 덕훈이 등 뒤에서 가만히 안고 있다. 그림처럼.. (디플트) 찡그러지는 덕훈을 인아가 등 뒤에서 가만히 안고 있다. 시간이 멈춘 듯...

덕훈

나 출장인데 / 아이고~, 저 부산이예요 / 원요일? 만나 생선~/아부지 제사네/ 죄송해요, 몸이 안 좋아서.(기침)제. //

<인서트/ 덕훈의 거짓말 집프킷>

덕훈

.. 무엇보다.. 금요일 밤은.. 너무나도 뜨거웠다. 주말에 포밍이라도 있을라치면,

인아가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문짓을 하자, 덕훈, 벽 쪽으로 인아를 밀어붙이며 계속 키스. 환상 좋은 신중부부의 모습들이 함께 융타주되며

덕훈

지루한 첫 주를 넘기고 나자, 주말부부도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않다는 권 알게 됐다.

편이 키스하는 두 사람.

인아

관 했잖아.

덕훈

보고 싶어서 꼭 봤잖아.

인아

(덕훈의 엉덩이를 토닥이며) 어구~ 우리 신랑 봐 있었잖아?

국자를 든 인아가 문틈 열어주면, 덕훈, 인아를 와락 껴안고 뽀뽀한다.

S#34. 주말부부 융타주/ 덕훈 아파트 INT.



녀  
 공  
 ... '왜이지자구?'  
 녀  
 공, 면한 채로 표정 굳어짐.  
 이  
 (녀공의 비명 때문에 반사적으로 기어들어감) 절호를 잡고 싶다가.  
 녀  
 (적, 비명에 가까움 외침) iiiiii  
 이  
 절호하고 싶어!  
 녀  
 (적, 녀공의 비명을 참으려는데, 뭐?)  
 이  
 그 사람 사랑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몸을 켜는 녀공, 얼굴은 바로 창백해져 있다.

녀  
 공  
 ... '물론에 들어 다친 환자.'  
 이  
 (호) '사라?'  
 이  
 '자기 나, 사람 있어.'  
 녀  
 (환인이 다짐) '응?'  
 이  
 (녀공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고) '자기.'  
 녀  
 공의 눈은 '만해줘' 라고 써 있다. 인아, 숨을 들이쉬다.  
 이  
 참시호 인아가 돌아누워 녀공을 마주본다. 두 사람 눈만 깜박깜박.  
 이  
 미적미적 드러누우면 정적.  
 이  
 가만히 있는 인아의 등을 바라보다가 녀공, 들춰내려서 그냥 들름 끈다.  
 이  
 (가슴을 움켜쥐고 울적한 지며) 어떤 새끼가 피를 흘려? '만해.'  
 이  
 '환인 인아? (담담) 에이, 내가 누구냐? 나 자기 남편.'  
 이  
 (물어본다)...  
 이  
 자기, 무슨 일 있구나.

녀공, 스캔드물름 권다. 몸을 일으키며  
인아, 응근슬쩍 녀공의 겨드랑이에 얼굴을 피묻으며 시선로 피한다.  
녀공, 인아를 안아서 시선로 맞추려한다.  
인아, 물름 끄고 녀공의 옆으로 와서 복는다.

이  
 (밝게 웃어준다) '물름 권?'  
 이  
 '물름이 피곤해?'  
 이  
 (그제서야) '아? 아냐.'  
 이  
 '자기 어디 아파?'

물 이자한 자세를 차린 녀공, 원자로 돌아오는 얼굴이다. 그리고 보면 인아의 표정이 생각하다 못해 어두워 보인다. 권이 어두워지는 녀공.

근데 결혼은 해보니까, 참 권체가 포개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연애는 아무리 사랑해도 서로의 도드라진 메만 보는 거야.  
결혼이란 연애는 다르니까.

아니, 난, 대체. 맘마한테는 뭐 못할 결혼을 왜 하겠다는 거니, 진짜~.  
(의기소침) 암마, 어부지까지야 용서이지..

벌어? (황당 환삼) 아이고...세상 이상한 게 너 하나가 아니구나.  
(속 터져서 피싱) 어우우우! 그래, 장인 장모님은 어쩔 거냐.

그럼. 우리 결혼시켜줄 왔는데.  
(삼호를하고 정신 가다들고)..그러니까 너 결혼할 거는 아는구나, 그 자식이.

무서워서 그랬어. 난 신이 미친년이라 그렇까 봐.  
나한테 안 하고 그 못한테 /

(무지 한 편는다) 찼드응? 찼드응? 니가 왜 찼드응 해!!  
찼드응이야.. (뚝) 찼드응..

.....  
그 사람, 나보다 더 결혼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거든..... (뚝)그래서야,  
결혼은 내가 더 원하는 거야.

그지야? 핸드폰도 없게? (전화기 탁 떨어뜨리며) 그 새긴 애미비도 없대냐?  
핸드폰 없어, 그 사람.

그 자식 누구냐. (자기 핸드폰 꺼내들고) 대, 전화번호.  
어떻게 생각해? 하나도 안 이상해. 자기가 조금만 /

어떻게 큰게 만두 안 되는 걸 맘같이 하나...  
아... (피싱)으으...으이 너 진짜 회한한 재주다.  
나한테는 행복만 행복인 걸 알게 됐잖아.

근데 당신 땀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허~ (버럭!) 어! 씨, 너 원래 결혼 싫어했잖아.

동거 아니야, 결혼이야.  
지금 뭐이랑 동거 하겠다 거야?

허. 허어. (숨 고르고) 아니, 법적인 거 상관없으면, 동거네. 동거~.  
법적인 건 상관없어.

왜애~? 왜애~? 물러서 물러서? 대한민국 일부릴꺼야. 원칙이 그래.  
왜애?

(버럭!) 어! 씨, 간단하긴? 간단? 하.. 뭐도.. 하...  
응. (기어들어가려는 목소리)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나랑 결혼했는데, 뭐 못하고 또 결혼을 한다고?  
응.

도호? 그 사람하고,도호?  
아니이, 그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싶다고.

아니이, 그니까... (담담) 이혼하자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럼.  
(화들짝 순사래) 아냐, 아냐. 그럼 가면 뭐가 걱정이겠어.

인아      화내지마~. 망신하고 나두 우리구, 그 사람하구 나하구 망신하구누/  
 덕골      (그나마의 평정릉 없고 내지글다) 우리이?  
 인아      그우 그런 느낌이. 우리 정만 평정릉 없었기 때문에...  
 덕골      지금도 너 니 몇대볼 참잖아. 더 관 데가 많잖나?  
 인아      내가 더 나 자신으로 참아관 수 있을 것 관은 그런 미래...  
 인아      아파트 평수나 자석은 별 명, 그런 거 람구,  
 덕골      참시관이 사는 게 꿈이라며?  
 인아      워. 워워. 그러니까 나랑은 (하다가 생각났다! 따진다.) 미래 관은 거 안 따진다며?  
 덕골      그 사람을 생각하면... 미래가 보여.  
 인아      근데...  
 인아      아나... 나, 이대로의 당신이 정말 좋아.  
 덕골      나랑은 불편했?  
 인아      ... 나랑 평정릉... (똥) 쌍둥이관이... 그래서... 편해.  
 덕골      (부시하고) 어디가 그렇게 좋다.  
 인아      (격정스런게) 지하철 관대니까, 편하.. 자기 늦겠다.  
 덕골      (공연히 들먹는 빼양, 문정거, 밖에 데고) 야, 이 개새... 문정 똑바로 못해!!!!  
 인아      ... (기어올아가는 북소리) 그러니까 다행이지. 자기누 만났으니까.  
 덕골      그우 처음 만났을 때 절호를 하지. 그런 나 안 만났을 텐데.  
 인아      ... 양양던 사람이야, 좋아하게 된 건 이번 린 관이 하먼서구.  
 덕골      (자물하고 늦게) 언제 만났다.

공작한 아침 들근진. 공작하는 덕골과 열자리의 인아.

S#36. 덕골 차 안 (서용역으로 가는 길). INT./EXT. 아침

덕골      들탄은 잤다.  
 인아      한 판릉 없고 인아를 응시하는 덕골, 쇼크에 빠져 넘어가 있다.  
 인아      ..그 사람한테두.. (똥) 사랑하는 사람을 정부로 만들 순 없잖아.  
 덕골      안돼! 그건 다 거짓이야.. 당신한테 그럴 수는 없어.. (덕골이 보편)  
 인아      참을 포개든지 뒤집든지! 나를 맘대로 해!  
 덕골      백면 양보해서 동거하면 됐잖아. (버럭버럭) 나 틀래! 동거 열심히 해서!  
 인아      (호소) 그렇게 보지마~. 애원하고 싶은 건 나아~. (생각할수록 남들이 안 된다)  
 덕골      (애원하듯 본다..) ...  
 인아      이걸 세상이 두 쪽 나는 거 보다두 큰일이야. 나한테는은!  
 덕골      (버럭!) 똥공? 차라리 별름 따 람과 그래! 별름!  
 인아      단 그우.. 단편만 하나 더 찾겠다는 거뿐인데...  
 덕골      (서공해서) 생각두 안 해보구... 화만 내구. 내가 무슨 람을 따 람래, 별름 따 람래.  
 인아      (울분해서 버럭) 그래서 장난해, 지금!

다짜고짜 밉고 들어오는 덕주. 무척 흥분했다.

덕훈

(하려) 누나.

이 어 모슴름 드러내는 여인. 누나(덕주)다.

덕훈

(학)!

은서/준서

외삼촌!

덕훈, 벨소리.  
덕훈, 콘를 열면, 유지원, 조음학교 아이 례이 서 있다.

덕훈

토요일... 아내는 오지 않았다. 대신,

거실 소파. 부스스 콘를 일으키는 덕훈. 밤새 거기서 잔 듯.  
오전 열한시 오십분. 테이블 위엔 서류봉투.

### S#38. 덕훈 아파트 INT. 낮

덕훈, 도장 뚜껑을 열고 인주를 문혀 이를 옆에 꾸욱 누른다.  
누른 채 한참을 떼지 못한다.  
이윽고 손을 떼면,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장.  
그 위로 후두둑... 주책 맞은 콘물이 떨어진다.

덕훈

나를 택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버리고도 남을 것이다...

이혼서류. 서류의 왼쪽(남편측 기입란)으로 들어오는 손. 주저한다.  
덕훈, 이름을 적는 칸에, '또박또박, 노덕훈'이라고 쓴다.  
이아, 나머지 칸들을 채워가며...

### S#37. 덕훈의 아파트 INT. 저녁

설치한 열론로 잔자코 앉아 있던 이아. 차 콘를 열고 나간다. (서용역 보임)  
사라지는 인아를 애써 쳐다보지 않는 덕훈, 잔시후 단호하게 차를 출발시킨다.

덕훈

씨람! 그만해! (끼익) 차 세운다.) 보자보자 하나까! 우리는 무슨.  
너나 그 새끼하구 많이 우리해. (씩씩대다가) 관두자. 화넌 이유가 없다.  
분명히 말하는데, 내 대답은 노야. 질대로 노! 돌 중 하나만 해! 나는 그 새끼든!

턱훈까지 합세해 턱훈모를 말리느라 또 소동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죽고 싶는데 죽지도 못하는 표정이 되는 턱훈.

턱훈모 턱훈모  
턱훈소리 턱훈모  
턱훈모 턱훈모

내 눈에 흠 들어가기가 전엔 이혼 못해.  
아니 이때대구 물싸롱 2차를 다녀.  
아니. 요즘 세상에 물싸롱 누 차례 간 게 무슨 이혼사유라니!!!  
이 년이 애 를 데리고 재혼한 것이 뭘 위세라고 또 이혼한대냐.  
턱훈, (꼬옥상) 안 되겠다 싶어 아이들을 받으로 데려간다.  
턱훈모, '장모님 제가 죽임 죽입니다.' '엄마 왜 나한테...' 등등 소동이 벌어지고 턱훈에게 달려드는 턱훈모를 물드는 매형.

턱훈모 턱훈모  
턱훈 턱훈

(순찰관이 턱훈에게 달려들며) 너 죽고 나 죽자어어어!!!  
(회격) 할머니/엄마/장모님!

순간 끈이 확 헐리며 턱훈모가 뛰어들어 온다.

턱훈소리 턱훈소리  
매형소리 턱훈소리  
턱훈소리 턱훈소리  
매형소리 턱훈소리  
턱훈소리 턱훈소리

근데... (버럭 매형 머리칼을 쥐고 흔들며)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안면서...  
너무나 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나들려구 결혼했던거 양지? 응?  
나 용 아버지 바람 피는 불보가 있어서, 응? 집 나온 거 양지?  
그런부 쿤이야.  
딱 한 번 씌수 한 것입니다.  
바람 피는 건 죽어도 못 봐준다고 했지?

석탁에서는 두 조카의 귀를 막고 있는 턱훈.  
그 뒤로는 머리카락이 선하게 헝클어진 매형이 무릎을 꿇고 있고 턱수가 소리를 치고 있다. 매형 역시 간간히 변명을 한다.

턱훈 (더욱 회격) 매, 매... 형.

순간 멈춤. 다시 벨이 울리고 끈을 열면 웬 담자가 죽음상으로 서 있다.

턱훈 턱훈

응? 큰썩 이 인간이...  
(울분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응? 차라리...  
누나, 무슨 일/

덕후, 린이나 북도 쪽을 보면, 인아와 마를 체구의 한 남자(재경)가 보인다. 재경이 인아가 장롱 밑 물건을 들여다 주는 분위기. 물음 솜씨가 좋아서 물음들이키는 덕후. 인사하는 소리 들리고 덕후, 서풍을 쫓겨 인아 집 쪽으로 관 공비를 하는데, 들려오는 인아의 목소리,

재경(Off) 인아(Off)  
재경(Off) 인아(Off)  
재경(Off) 인아(Off)

배경이 레알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오름이 관심이겠쥬.  
레알 유니폼 입은 배경이라... 기대 만발인걸요.  
시작하겠어요. 열을 가요.

덕후, 계단에 앉는데 디폴트. 깜박 졸았나보다. 렐리베이트 도착음과 남자(재경) 목소리가 들린다.

S#40. 경주, 인아의 원물 안 북도. INT. 늦은 오후

덕후

경주요.

cut to 매표장구 앞.

덕후  
덕후

엄마. (덕후도, 돌아보면) 어부지랑 어떻게 살았수?  
(회미한 웃음) 안 살면? (돌연 썩신지) 누구 좋으라구, 언녕 좋으라구!  
(금새 또 돌아본) 어부지 원망마라. 그 남편, 나한테나 죄 많지, 생전거야  
별로 한 머리 죽인 린 없나라... (화들짝) 뭘시냐?

덕후, 무너지는 역장을 추스르려고 잠시 하트를 본다. 후-  
관 사이에 낀 서풍을 두들겨 때린 덕후, 툭툭 덕후도를 다시 부른다.

덕후  
덕후  
덕후  
덕후

누난 뭐래?  
...  
흥인신고 안했으니까 좋아야 한 개지~, 애해해, 요래고 웃어.  
(한숨, 진하게 쉬고 돌면. 이유도 없이 덕후 등을 칠씩 때리며)  
정신 똑바로 채려! 나 처한테 잔해! 요즘 나쳐 관은 여자 없다~,  
애가 어디 한 군데 버릴 테가 없더라.

그래서 누나랑 얘기 들 했어?

승차장 앞, 배웅하는 덕후. 덕후도 버스 쪽으로 돌아선다.

S#39. 고속터미널 INT/EXT. 낮

인아  
덕후  
인아

(안쓰러움) 자기..  
(머리를 털며 피싱)으으으...!  
(격앙) 자기..

원하게 있어 있는 덕후.  
인아, 린이나서 격격 거리며 승승 고글다. 재경은 린어붙었다.  
죽인 듯 복음 조르던 덕후이 린연 순어개의 핏을 물어뜯어버린다.  
휠철 흐르는데는 덕후의 노기 어린 눈물. 그리고 고올에 관 신음.  
말아하는 덕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인아의 붉은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린다.  
터린 듯 붉어진 현론포 덕후를 대면하듯 바라본다.  
덕후의 순어개에서 목어나려고 핏버올 지던 인아, 동지인릉 땀줄고  
재경, 덕후를 떼어내려 애쓰지만 불가능해.  
인아, 덕후의 핏을 잡고 버린다. 인아의 현론 붉어져간다.

덕후

(몸 겨간이 처참한 목소리로) 죽어! 차라리 죽어~!

덕후, 인아를 쫓아까지 밟아붙여 쓰러뜨린다. 쓰러진 인아의 복음 조르는데는 덕후,  
"하지마!" 린카포공 비명음 지르며 인아가 말리려하면,  
덕후, 재경의 머리를 잡아 다시 넘어뜨리고 룡라탄다.  
종잇장처럼 나뭇그마진 재경에게 새차게 털려드는 덕후.

덕후

드러공 새끼!

덕후, 재경의 린이 쫓나기도 전에, 재경릉 가력한다.

재경

노. 덕후들!

롤이 켜진다. 하지만 덕후 눈엔 보이는 게 없다.

덕후

(문 열리자마자 고향) 불켜어! 불켜어!

S#41. 인아 원물 INT. 밤.

끝노르 몸릉 편다. 몸릉 향해 저벽저벽 다가가는 덕후. 새차게 몸릉 누드르린다.  
북도에 북바르 버티고 선 덕후.  
덕후, 눈에 불이 번쩍! 인아 집 현관문 닫히는 소리 들린다.

인아(이)

재경씨! (등) 들어왔다 안 관례요?

경주 시내. 빠르게 걷는 덕훈. 간격을 두고 뒤 따라 걷는 인아.

S#43. 경주에서 덕훈 집까지의 몸타주. 밤

도망치듯 빠르게 계단을 내려가는 덕훈. 인아, 다시“자기!”

덕훈 (플릿) 쪽.판.줬다. (쩍짜게 계단으로 돌아서며) 죽고 싶을 만큼.

인아 자기.

곧소리 나고,

덕훈 철년의... 머리채를 잡아뜯은 기분... (주먹을 펴면, 머리카락이 우수수) 었마...

복도를 걸어 나오는 덕훈. 한결음 내딛을 때마다 표정은 점점 참담해지고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가만히 주먹을 내려다본다..

S#42. 경주, 인아의 원물 앞 복도 INT. 밤

덕훈, 돌아서서 나온다.  
그제야 덕훈 눈에, 클럽 축구가 방송되고 있는 TV가 들어온다.

덕훈 똑똑히 들어. 나, 절대로 이혼 못해! 누구 좋으랴구, 누구 좋으랴구우!  
절대로 이혼 못하고, 나네, 나네드름, 무슨 지랄을 해두 인정 못해. 안해!  
사랑? 사랑 좋아하네, 나넌 현재 스킵야, 간동이야~. 안아? 간동! 간동웅!

덕훈, 서풍을 환풍하듯 썰어받으며  
그 와중에 나뭇잎이 하룻거리며 털린다. 인아가 선풍한 그 나뭇잎.  
바닥에 떨어져있던 서풍분투를 잡아들면 이혼합의서가 주욱 흘러나오고

덕훈 닥쳐! 새끼야!

재경 진정하시...

덕훈 뭐! 뭐! 뭐! 뭐, 새끼야!

덕훈, 바람같이 돌아서서 주먹을 털리지만 이번엔 재경을 정확하게 때리지는 못한다.

재경 저. 잠(시만.)

덕훈, 돌아서면 재경이 따라나선다.



덕훈

(녹음의 문금없이) 바르셀로나, 해바.

잠시 정적.

덕훈

(미지쳤다)...

인아

내 소원은... 자기랑 헤어지지 않는 거야.

덕훈

...

인아

꼭 틀어주기로 약속한 거...

덕훈

...

인아

(잠긴 북, 절은 음성) 그때 저금한 소원 있잖아.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었던 듯.

(경파) 나란히 앉아있는 덕훈과 웅어선지 말간 열론의 인아.

덕훈, 웅을 차주려고 웅을 내려다보면, 다가와 있는 인아의 발이 보인다.

아이들이 찬 죽구웁이 덕훈 발아래로 포르트로 콘러온다.

말간 열론도 그네에 앉아 있는 덕훈. 죽구하는 조무래기들이 보인다.

S#45. 루이더 EXT. 오전

몸을 일으키고 앉아 툼끄러미 인아를 내려다보는 덕훈.

여전히 덕훈을 옆에 문제 잔들어 있는 인아.

(경파) 아침, 덕훈, 곤릉 끈다. 아래를 보면,

그리고 덕훈을 옆에 끈다. 덕훈, 곤릉 더 꾸욱 감는다.

인아, 덕훈에게 옆 툼추고는 덕훈의 몸을 따라 아래로 아래로 내려간다.

인아, 덕훈의 열론을 보지만, 덕훈은 감은 곤릉 또려하지 않는다.

덕훈이 다시 돌아누우려 하면, 먼블하듯 물드는 인아.

덕훈, 곤릉 감고 있다. 잠시 후, 인아, 침대를 돌아 덕훈과 마주보고 볼는다.

인아

미안해....

인아, 덕훈의 몸을 감싸 안는다.

덕훈, 인아에게서 몸을 돌린 채 응크려 누워있다. 그 옆에 누워있는 인아.

S#44. 덕훈 아파트 INT. 밤/낮

옆차 안, 양복을 보는 덕훈. 덕훈을 보는 인아.

아파트 헬관 앞. 인아가 따라오는 걸 알면서도 곤릉 짱 닫고 들어가는데 덕훈.

안쪽에서 문 잠그는 소리 쉼켜덕. 인아, 열쇠를 꺼낸다.

덕훈, 표판에 와 있는 인어의 원본을 무심히 보다가, 그대로 옮겨 키스한다.

인어 (한글판 덕훈 원본 다시 자기 쪽으로 돌리며) 원본 좀 봐. 헛썩해.

인어, 옆으로 와 앉으며, 덕훈의 원본을 자기 쪽으로 돌린다.  
포플 책 TV로 다시 고개를 돌리는 덕훈.

인어 와... 우리 친 댁새... 2층 만에 보는 마누란데 안 반갑나?

덕훈, 탄없이 TV만 본다.

인어 뭐야, 있으면서. 문누 안 열어주구.

덕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  
원판 분이 원리고 트렁크를 든 인어가 들어온다.  
암지상태에서, 벨소리에 이어, 원쇠로 문 따는 소리.

S#46. 덕훈 아파트 저녁. INT. 밤

그렇게 앉아 있는 두 사람. F.O.

덕훈 (여전히 앞을 본채) 웃지마. 이런 내가 짜죽이고 싶게 미워지니까.

인어, 덕훈을 원망스러운 듯 보다가 한숨을 쉬듯 용면서 웃는다.

덕훈 예고.. 애들 이름 참 지어야지. 무섭다. 주인아씨.

그렇그렇해져가던 인어의 눈에서 짧은 눈물이 뚝, 떨어진다.

덕훈 나 단산 만년 거 후회해..., 단산.. 미워해... (숨을 내쉬고) 단산... 맘대로..해.

덕훈의 복잡한 원본.... 그러나 담담하게..

<인서트> 정종진. 바르셀로나에 대해 열띠게 말하던 인어의 모습. //

육감적으로, 혹은 귀엽게 포착되는 인어의 영웅.

인어 (영문도 모르고) 바르셀로나

덕훈 바르셀로나~ 한 번 해봐.

인어 ?

별수 (취했다) 쪽팔려서 엇다 대고 말을 할 수가 있다....

덕후 (머리 디밀며) 바라, 오죽하면 머리가 다 빠진다.

덕후 (무덤덤..)

별수 야

덕후 (짜증) 왜?

별수 어릴 때부터 성당 친구잖아. 추잡한 짓들. 백년을 기도해봐라, 지옥가나 천당가나.

덕후 그래서? 제수씨가 헤어지잖?

별수 (랄근) 무슨! 털지~. 한번만 용서해달라구. 애들 없인 못 산다구.

덕후 근데.

별수 (뭔가 근데야'하듯 쳐다보면)

덕후 야, 뭐가 문제냐고.

별수 새끼. (속타짐) 마누라가 바람을 폼다나까이!

덕후 이종하잔 건 아니라며, 안 그런다 빈다며, 용서하면 클이네. 뭐가 문제냐?

별수 (버럭) 왜!?! 뭐지!?! 왜!

S#47. 단를 바 INT. 밤

별수와 덕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술을 내주는 사장님 마텐다.

이미 여러 번이 비어 있다.

인아 (털떡 일어나 앉으며) 이럴 거지이!

인아, 너는 서공함을 견딜 수 없는지, 일어나 밤 밖으로 나가버린다.

덕후의 웃은 가공데 신관한 열론.

덕후 두 개의 반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덕후.

인아가 다시 덕후를 묻어 안는다. 덕후, 웃 하게 뿌리친다.

인아, 힘으로 덕후를 돌아 누이려고 애쓰는데, 덕후 버틴다. 조용한 응박전.

덕후 나는 그녀의 친구가 아니다. 전담편도 아니다. 영연한 남편이다.

덕후 그런데... 아내가 결혼했다.

덕후 두 개의 반지가 나란히 끼워져 있다.

덕후, 일어나 앉는다. 비축이 나온 인아의 원순 네 번째 손가락에는

cut to 밤. 침대. 인아가 덕후를 안지만, 덕후, 그저 눈만 깜빡일 뿐.

인아 클?

감미로운 키스가 아니라 단순하고 물리적인 느낌으로, '나가 누구냐'하듯.

근세 림을 떼고 다시 TV로 열론을 돌린다.

잠시 저항하다가 인아, 덕훈을 안고 그냥 가만히 있어준다. 다독이는 느낌. 혼자 거진 취하던 덕훈. 역시 이내 북적름 없고, 뽀뽀해주는 게 보인다.

인아

아파. 아파.

인아가 반사적으로 저항하고  
공간적으로 물러 소리치는 인아. 덕훈, 거칠게 인아의 잠옷바지를 벗기고 들진한다.  
와락 털려드는 덕훈, 그러다 미끄러져서 인아의 다리를 겨우 붙든다.

인아

레알하고... 바르샤...

현관 문을 벌럭 벌럭 열고 들어오는 덕훈. 현관이 벌췌다.  
TV 앞에 앉아 FC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보고 있던 인아가 돌판다.  
인아에게 뚜뽀뚜뽀 다가오는 덕훈, 무서움 현론. 인아가 이상한 느낌에 긴장한다.

S#48. 덕훈의 아파트. INT. 다들 땀 새벽

덕훈

(자기 잔에 소주를 따르고 울이) 마셔! 마시고 이혼해라! 이혼해.  
(그 와중에 호기심. 은근히) 뭐야, 너, 뭘 일 있구나~.

병수

(주방에 대고) 어! 형~ 들 찬찬 해에!!!

바텐더, 철거지 그곳을 유난히 탐그락댄다. 덩달아 긴장한 것.

덕훈

너와구만 찬했다는 거 아냐~아아아아!!!  
관뽀했다고 안장 다시 갖다 놓는다는 거 아냐아아아아~!!!  
(숨 뚫뚫 쉬고) 나, 씨발, 멀티안장시스템을 알거나 해?!!! 내가... 어우우우!!!  
(한숨 뚫뚫. 소주를 틀어준다) 내가... 와.....  
마! 너 행복하냐 좋아~! 알고오! 좋아! 마셔.

병수

내가 너 관은 새끼를 뽀에 한국 담자들이 다 싫어진다!  
어우우! 예라이, 나쁜 새끼. 쥘레 관은 새끼.  
편 년 엉덩이 밑에 가 있는데. (뽀 받는다) 아찌다 한번 제수췌 쥘수 한 쥘 갖구  
(머리) 그럼 니 와이프 자전거는? 니 와이프 안장은 북하면 빠져서

덕훈

뭐? 안장은 자전거의 줄이야, 새끼야! 편 뽀이 뽀쳐 타구 그 혼름 빼간 거야.  
찾아다 췌.

덕훈

어느 뽀 털려구 보니까 안장이 없네? 이런 씨!

병수

금뽀 줘줌이 나. 내버려줬어~. 그래도 내편 내꺼야.  
(속 터진다. 장광췌) 뽀! 여기 새 자전거가 있다고 췌자.

덕훈

(뽀가 문제나는 식으로 쳐다보면)

(정파) 다른편 밤. 스탠드를 쫓다가 다시 켜는 덕후.  
인어의 배를 보고 미션액은 표정을 짓는다.

덕후	(버력!) 너라면 이 마당에 여보소리, 나오겠냐?
인어	자기 근데, 왜 아까부터 그때라 그래?
덕후	그때.. 잠... 잠...
인어	하나라를 만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두 배가 되는 게 아냐...
덕후	(담담) 안고 싶다, 정만..
인어	...
덕후	(숨을 내쉬고)... 사람이 나뉘지나?
인어	응?
덕후	(조금 긴 뉘)... 그때...
인어	안아~.
덕후	(다시 버력) 가면! 가면! 뭐가 다 왜?
인어	이민 관까?
덕후	(버력) 물릉 일으켰다 다시 누우며) 어우우~!
인어	관이 사는 건 참지?
덕후	걱정 되는 건 나야. 돈 많이 까매. (뉘) 안 큰다면.
인어	걱정해주는 거야?
덕후	뉘이 그렇지, 두 짝 찬람릉 아껴하나구.
인어	뉘들간은 탄라칠 거 없어. 주뉘엔 자기, 주뉘엔 걸추.
덕후	이제 아껴할 거야.
인어	(보면)
덕후	그때,

cut to 침대. (정사 후.)

침침 짚고 또거워진다.  
두 사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짚은 키스를 나누고  
신음을 내뿜으며 무너지는 덕후.  
그리고, '이구.' 하며 웃는다. 사랑스럽게 마주 보는 두 사람.  
덕후, 인어, 서로 뚫어지게 바라보다 물이 동시에 피석하고 웃음을 터뜨린다.  
물이 겨안고 리플레이까지 다룬다. 그러다가  
레앙의 호베르투 카를로스가 선제골을 터뜨린 것.

인어/덕후 (헉 물아보며) 누구?

두 사람, 관이 반사적으로 몸뉘림 일으키며 TV를 본다.  
TV에서 환호성이 터진다. 쿵... 인!!!!  
덕후, 아주 잠시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없이 멍줄 순간  
사실 아직 웃도 다 못 벗었다.

덕훈, 콧방귀 뀌!

인아 (고무장갑 낀 손음 흘리며) 안한다 이거지아~?  
 (덕훈 모를 척 뒤구 안함) 완전 체질이자, 삶의 기쁨이라는 그 찻거지를  
 인제는 안하신다 이거지아~? (똥) 좋아!  
 단테없이 텅텅음 들고 공동하는 덕훈.  
 복근운동/ 푸쉬업/ 운동에 집중하는 덕훈. 의미심장한 미소.  
 요리하라, 빨래하라, 청소하라 여념 없는 인아. /  
 틀어지게 소파에 누워 오락프로그램 보고 있는 덕훈 옆론 위로 고개를 틀어미는 인아.

S#49. 덕훈 아파트 거실. 아침.

덕훈 람들 좋아하시네~. (차범근 해설 람투로) 축구는 끝내 안에  
 끝을 찾아내는 경기예요~, 끝을 못 났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인아, 덕훈의 머리에 쿼방음 한 대 매기고, 타박하듯 웃는다.  
 틀어 다시 볼볼기 시각. 격극적인 자세로 돌진하는 덕훈에서,

덕훈 우씨. (인아에게 달려든다.)

잠시 똥.

덕훈 우씨. (인아와 자기 사이에 금을 갖 듯 이물을 가르며) 그래. 그렇시다.  
 인아 이번 주는 쉬어, 당신 람대루 담부턴 수요일에만 할 테니까, 됐지?  
 덕훈 웃겨. 람들이 이따 만해. (덕훈을 쫓아보려는 이물을 떨고 반듯하게 누우며)  
 인아 (비웃음) 에~.  
 덕훈 (탈끈) 스무 번도 해.  
 덕훈 대신, 수요일은 푸러이~. 열 번을 해도 돼. 그 몸으로 무슨 열 번을 하겠나만은.  
 인아 수요일 낄 하면, 그놈 꺼랑 내 꺼가 그대 뺏속에서 전쟁할 일은 없는 거지.  
 덕훈 (기분 나쁘려 그런다) 그래서.  
 덕훈 안 틀음 려? 그 새끼 권 모르지만 내 권 무지 용맹하거든.  
 인아 (여전히 서클) 사이 좋게 지나라 그러면 돼.  
 덕훈 그럼 그놈 꺼랑 내 꺼가 그대 뺏속에서 전쟁을 하진 않을 테니까.  
 인아 왜.  
 덕훈 나는 그대가 그 자식이랑은 수요일에만 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다.  
 인아 이씨. 관둬.  
 덕훈 아직.. 참아 있겠지.. 이 속에.. 헤엄치는...

S#50. 원재범 INT. 낮

나란히 서서 각자 책을 보고 있는 덕훈과 인아.

덕훈 (주변 분위기를 살짝 보고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인아 (책에 시선 두고) 아.

덕훈 내가 봐야냐. 그 뭘이 봐야냐. (말하고는 기대만발)

인아 (덕훈을 본다.. 한심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둘 다 봐.

덕훈 그래? (머리 흔들다) 그 새끼가 더 오래하냐, 내가 더 오래하냐.

인아 때마다 다르지.

덕훈 아 씨.

인아 호나우두랑 지단이랑 비교할 수 있어?

덕훈 누가 스트라이키켜하고 미드필더를 비교하래?

인아 좋아. 그럼 베컴이랑 피구를 보자. 누가 더 좋아하는지 비교할 수 있어?

관은 미드필더라누 피구는 영어 스타일이구 베컴은 뽀스타일이구.

기운이 뭔데? 누가 더 많은 숫자의 수비수를 세쳤는가? 당연히 피구겠지.

그치만 수비 가담 능력이나 결정적인

덕훈 **이럴 때는 저 쪽그만 일수록**

**조매버리고 싶다. 좋아, 그렇담,**

베컴이 훨씬 낫다고 봐야지. 감독이 어떤

덕훈 전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닌거?

인아 좋아. 그때가 감독이라면? 한 명만 내보내야 한다면? 나야, 그똥이야.

인아 (바보) 우리 팀은 두들겨 쳐야.

S#51. 덕훈 아파트 INT. 오후

인아의 화장대 앞. 인아의 수첩을 보는 덕훈. 빼곡한 메모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덕훈쪽,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재경 쪽 경조사.

덕훈 우리 감독으로 말하자면 완전 두들이 체질이었다.

덕훈 (수첩을 탁 덮고는 버럭) 우씨! 내가 왜 파람이야!

인아 (이거 봐라~ (들어야와 산적첩시를 코 앞에 내밀며) 진짜 이쁘지?

어머나 힘드실까봐~.

S#52. 덕훈의 시골 집 INT. 아침

매형이 응석첩시를 들고 부산하게 오가고 있고

산적 첩시가 계사장에 물려 진다.

경주로 진입하는 차.  
공전릉 하다가 잡아먹을 듯 옆 자리를 노려보는 덕훈.

S#53. 덕훈의 차안 INT/EXT. 밤

덕훈, 훑듯 보면, 밝게 웃으면서도 고단한지, 손등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물리는 인아.

인아	참, 어머니! 오징어 건치 잔쳐주신것 같아요~.
덕주	(애프스리공 웃음으로 호응)오호호호! 오호호호호!
덕훈모	(웃으며) 나두 암마 잔치 대로지~, 맨날 뭐했수? 나들은 나같이 잔치 마라~.
덕훈	(덕주를 겨냥해) 찌년들은 물라두 내 아들 하난 잔 잔쳤지.
인아	(웃 썬은 표정으로) 응.
인아	(자랑) 보세요, 얼마나 잔 하는데요~, (덕훈에게) 그치이~.

덕훈이 잔거지를 하면, 인아가 받아서 정리하고 있다.  
잔거지에서 해방됐어도 계속 뭔가를 치우는 매행이 지나다니고

덕훈 (아버지 영정을 노려보며 하스연) 영 있으시면 뽕뽕을 들 해보세요, 네?/

덕훈, 기가차다는 듯 못 들은 척하는데, 중용하듯 등짝을 후려치는 덕훈모.

인아	(덕훈의 부르르와 동시에) 아유~, 혈년이 고생이시죠~, /저야 어찌다 와서... 시용만 하는 건데요, 뭐~/ 오호호호/ (매행이 고무장갑을 끼자) 어! 잔거진 저희가 할 게요, 어머니~, 모르셨구나아~ 저이 썬 좋아하는 게 잔거지예요.
----	---

덕훈 (동시에) 제가 할게요! 여우어우, 여우, 여우, 여우~

인아 어머니, 제가 할 게요!

제사를 주도하는 인아의 몸타주 위로

덕훈 아버지가~ 저 좀 보세요~/ 집에 온 내내 아내가 제일 많이 한 말은,

덕훈모의 칭찬에 흐뭇한 인아와 더욱 속 터지는 덕훈의 열풍/  
느긋한 덕주와 손, 발이 땀을 들은 매행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스케치 되고,  
덕훈과 인아 절한다. 절에서 절하는 인아를 가슴스럽다는 듯 훑듯 보고,

덕훈모 (호뭇) 함 보슈~, 얼마나 야무지게 부쳤는지, 우리 얘기가 해운 겨유~



덕후의 손, 책장을 훑고 지나간다. 한 권을 책 채우고 있는 속구 관련 책을.

덕후, 뭔가에 압도당한 듯 거부, 호오~, 숨을 내쉰다.  
누가 봐도 칸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꾸며놓은 공간.  
나란히 놓인 노트북 두 대, 유난히 눈에 띄는 턴테이블, 진우관앨범포.  
공를 응시하며는 덕후. 들어가진 않는다.

받아지는 실내, 벽면에 가득한 책들. 결혼 전 인이어의 아파트와 불사하다.  
덕후, 괜히 '훔' 훔기침을 하고, 반쯤 처진 커피를 완전히 건는다.  
덕후, '엄마야!' 화를 짜 놓람. 하얀 고양이, 유아한 자태로 소파에 오른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덕후가 들어선다. 스릴! 발판을 스치고 지나가는 무엇.

불안한 듯, 조조하게 주변을 살피는 덕후.  
옆의 수리공이 재경 아파트 원관문을 따고 있다.

S#55. 재경의 아파트 INT. 오전

아침. 차안 시선으로 돌근하는 인어와 재경의 모습이 보인다.  
차 안에서 왔는지 부스스한 덕후.  
보는 덕후.. 그러다 뭔가를.. 생각하는 듯. /  
재경, 짐을 챙겨 들고 인어와 원관 안으로 사라진다.  
재경이 내려와 꾸벅 인사를 한다. 인사도 안 받고 췌하니 차에 타는 덕후.

인어 (아쉽게) 그래... 그럼...  
덕후 (벼락 으르렁) 어디일~. 가다 죽으면 죽었지.  
인어 들음공진 위험한데.. 잠깐 올라가서 돈 들 물어구 가.  
덕후 괜찮아. 들어가.  
인어 (안쓰러워한다) 피곤해서 어떡해.

싸운 음식이며 짐을 내려주는 덕후. 인어 잠이 툭 깬 원관로 받아드는,

S#54. 인어와 재경의 아파트 단지 INT./EXT. 밤/아침

덕후 그치만... 가름은... 이 여자를.. 진짜로... 이해하고 싶어진다.  
완전히 뿔아떨어진 인어가 보인다.  
노려는 뿔지만 실은 안쓰러움지, 인어의 머리를 편하게 바로 눕어준다.  
새근새근 자는 인어의 옆쪽. 들어내린 머리칼을 물려주는

별수, 이거봐라아~, 하듯 보다, 턱푼 옆에 놓인 잠미 한송이를 보고  
“뵤나~, 이긴” 하는데, 풋풋한 느낌의 한 여자(소영)가 들어서 다가온다.

턱푼

(냉소적으로 웃으며 멋지게 손을 흔젍)...

별수

새끼. 마이~ 변했네.

황송한 줄이나 안어.

관만 들어다녀. 니나 니나 그 향공모함에 드나드는 불편한 비행기야. 맘마.

턱푼

(끼어들어 일관.) 뵤~신~. 향구? 요새 여자들은 향공모함이야.

별수

아이구. 지가 어디인. 심수물 물라? 단자는 배, 여자는 향구.

마사잔

주유관은 케면이다. 저기... 저 아이포가 먼저 차버렸어야 되는데.

여자한테 죽인 똥은 버리구 떠난 똥이야.

별수

아~ 뵤~. 단자한테 죽인 년은 바람 편 년이구우,

마사잔

요즘 세사 바람 한번 폼났고~. 똥 그치 않냐?

별수

(모름 척 들 하지이) 쪽. 팔. 리. 게.

마사잔

(끼어들다) 똥 참지~.

턱푼

... (슬만 흔젍린 똥)

별수

세끼는... 똥이 없냐. 내가 이혼을 했단나까아.

바텐더 걸 사장이 늑은하게 바라보고 있다.

### S#56. 단풍 바. INT. 저녁

신발 장 안. 똥가를 필요하게 느껴보는 턱푼. 타오르는 눈동자.  
너무 필요해서 멍해 보일 지경이다.  
턱푼이 보고 있는 건, 나란히 걸려 있는 우비 두 개.  
턱푼의 현관, 끝노와 처참함, 허탈함으로 인그리진다.  
턱푼 갑자기 책, 비디오테이프, 우비 등을 마구 던져 어쩔려 놓고, 문을 활 닫고는 나간다.  
관시 후, 다시 들어와 정리를 하는 턱푼. 그 모습이 쓸쓸해보인다. F.O.

턱푼

아내가 한 말을 안 것 같았다. 미레가 보인다는 말...  
... 똥... 똥... 똥... 관다는 말...

(중국 원단성의 소수민족 모수족을 다룰 방송용 다큐멘터리.)  
나레이터 소리 들려오며.. 멍한 얼굴로 티비를 응시하고 있는 턱푼..

한 여자가 한 단자에게 손바닥 위에 올려진 작은 나뭇가지를 내밀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쪼르록 쭈뼛 비스한 주제의 비디오 테이프를 /

[클리어포리, 일부원저체를 던져서]....

그 옆으로 다시 한 칸을 움뚱 채우고 있는 사랑과 결혼, 인문학 관련 책을,  
[사랑, 그 릴레마의 역사], [나에게는 두 단자가 필요하다], [가족 사회학],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함박 미소를 짓고 있는 덕훈. 보편,

S#59. 덕훈 아파트, 밤 INT. 밤

덕훈 아내와 한재경은 일산으로 이사를 했다. (이케를 으쓱) 내 안 바 아니지만.

덕훈, 매담없이, 빨래를 털며 건들건을 휘파람 부는다.

인아 왜 일이야, 자기?

의음환 일콜로 소파에 앉아 빨래를 너는 인아를 보고 있는 덕훈. 여유자작 다가가 자기가 하겠다 시음.

S#58. 덕훈 아파트, 거실 INT. 오전

덕훈 유쾌했다! 너무나 너무나

덕훈, '푸하하-' 웃음을 터뜨린다. 한참을 유쾌하게 웃는다. 소영, 시원하게 잔이 웃는다.

소영 (환짝) 들어 봤어요. 핸드크림이죠?

덕훈 아뇨. 에프씨 바르셀로나.

소영 바셀린이요?

덕훈 (불쭙) 바르셀로나 아세요?

소영도 상큼하게 웃는다. 풋풋하다. 덕훈, 시원하게 웃는다. 유쾌한 쾌담으로 보인다.

소영 (덕훈이 마음에 들었다. 상큼하게) 전, 은라인 남편두 리벤지님이 처음!

덕훈 (멋지게) 오프에서 와이프는 와사비님이 처음.

S#57. 다들 들춰 EXT. 밤

덕훈, 씩 웃으며 잠미꽃을 든다. 소영, 받아든다. 함께 나간다. 흥격에 활짝여 바라보는 병수와 마사장.

소영 (덕훈에게) 리벤지님?

까야~가파른 경사를 넘어오는 롤러코스터 열차 위에 턱푼.  
정작 소영은 태연한데 턱푼은 하얗게 질려있다.  
내리막을 쫓는 순간 턱푼, 비명을 지르며 소영에게 밀착 하고

S#60. 록이웬원 EXT. 오후

전화 끊은 턱푼, 입이 찢어져라 웃는다. 으하하하.  
신이 나서, 괜히 림도 없이 방안을 한 바퀴 돈다.

턱푼 (계경) (가지개를 켜며) 당신들 문제 당신들 알아서 하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슈!  
그게..

턱푼 (계경) (떨어... (질질하게 타어들다) 자유로운 영혼께서 뭘 그리 초조해 하구 그러시나.  
며칠 늦는 거 갖구.  
(룩이 죽어) 그게..

턱푼 (계경) (파하하하! 웃는다) 집사람 말로는 당신은 림투 림은 건 안한다던데?  
... (림 없다가 순순히) 그런 것 관습입니다.

턱푼 (계경) 림투 하나?  
(또끔) 뭐가요?

턱푼 (계경) (웃음이 쏠다, 은근히) 그래서~?  
회사누 서로 다른 데로 다니자 하고...

(계경) 경주 림이 연장 됐는데누 림이 일산으로 오자구 하구,  
(오호호.. 하는 표정)..

(계경) (시무룩) 저, 림은... 요즘 인아씨가 자꾸 늦구요,  
(시지미) 뭐가.

(계경) ... 요즘 인아씨.. 둘 이상하지 않습니까?  
(림가, 스승 찢어진다.) 밧테리가 나가면 끼지는 게 휴대폰 아니요.

(계경) 연락이 안돼서요, 휴대폰누 꺼져있구...  
(오잉? 호기심. 그러나 질질) 큰세 여기도 안 계시네.

(계경)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혹시 인아씨, 거겼습니까?  
(무뚝뚝) 무슨 림이요.

턱푼, 림론 끼그러지며, 채팅창에, '리벤지 잠시.. 킬.'

턱푼 (계경) 여보세요?  
저 한재경입니다.

사이버 신중방에서 와사비(소영) 아바타와 사랑중이다.  
전화벨이 울린다. 액정 확인.. 포르는 변호인 듯.

인아, 볼름 좋구나. 덕훈도 덤탕아 입간을 본다. 인아, 박수를 친다. 덕훈 볼름 켜면, 인아, 활짝 웃는 얼굴로 편, 작은 웃이쪽을 내민다.

인아

(덤하지 않고) 하나아, 누룽,

덕훈

무슨 탕인데.

인아

볼 끄자.

덕훈

(아정형에게 마주 앉으며) 무슨 탕인데.

인아, 덕훈에게 어서 앉으라는 몸짓.

덕훈

(또큰) 그때 웨일이야 (두리번) 오름 북요림 아너?

웃노래를 부르며 틀어하던 덕훈, "엄마야" 화를 짝 띤다. 아무도 없는 풀 앞에선 집안에 켜진 작은 촛불 네 개. 어둠 속, 네 개의 조가 쫓힌 케익을 앞에 두고, 인아가 앉아 있다.

S#62. 덕훈 아파트 INT. 밤

덕훈

미레, 지금의 나보다 더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미레.

소영

(감동) 오빠..

덕훈

(편 생각하다 그만) 응.. (바로 대답으로 전환) 응. 나~무 못해. (코를 쥐었다 놓고)

소영

나 관 못하지.

정사 후, 이틀을 묵까지 끝나다 떨어진 소영이 덕훈 옆에 누워있다. 덕훈, 소영의 이마에 다정하게 입을 맞춘다. 약간 편 생각 증인듯.

정사 중인 소영과 덕훈. TV에는 축구중계가 나오고 덕훈, 열과 성을 다하지만 조금 무표해 보인다./

S#61. 포텔 INT. 밤

덕훈

(후를 떠는 와중에도 흐뭇) 흐으으 ~ 오빠...

소영

하하하. 오빠야!

덕훈

오아아아아!

그들이 탄 열차가 후속-속도감 있게 사라지며

인아

누가? 누가 그래 누가?  
왜 몰라. 여자들은 다 안다는데.

덕훈

인아  
그런 내가 어떻게 안어.

인아

그러니까 니 아간데... 그 똥이냐구 나냐구.

덕훈

관둬. 관둬. 내 아가야.

인아

뵈야. 그 새끼야.

덕훈

(덕훈을 췌 친다) 이씨.

인아

(화색이 툭다가 다시 화인) 화선한 거지. 내 새긴 거지?

덕훈

당근이지.

인아

에이.. (자기를 가리키며) 나? 아빠?

덕훈

그런 걸 그랬다.

인아

그 똥한테 먼저 안려줄 수도 있었잖아.

덕훈

뵈.

인아

근데, 왜 나한테 제일 먼저 안려준 건데?

덕훈

아직 아무도 몰라. 자기한테 제일 먼저 안려주는 거야.

인아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아, 어머님한테 먼저 해야지?

인아

덕훈, 겁이 뭘 샌다. 그런 덕훈에 아랑곳없이 전화기를 드는 인아.

인아

(똥 웃으며) 그래야. (순으로 원름 크게 그리며) 우리 이야기.

덕훈

우리 이야기라며.

인아

이제 네 명이 됐다는 기념이지.

덕훈

(축하 말 별어진다) 와.. (틀렸듯 뵈가 생각났는지) 근데 왜 조가 네 개야?

인아

그럼.

덕훈

우리 얘기지?

인아

6주.

덕훈

3미리? 아유 귀여워... 죽겠다, 정말.. 얼마나 된 거야?

인아

키가, (순가락으로 3미리를 만들어서) 3미리래. 많이 컸지, 우리 얘기!

인아

인아, 호응하듯, 소리 없이 두 팔을 움려 민세를 부르듯 귀엽게 흔든다.

덕훈

당신...!

덕훈

물러서 멍하던 덕훈의 원공에 물린듯 밀려오는 기쁨과 감동.

인아

아가.

덕훈

(툭판다)...

인아

아가.

덕훈

이게.. 뵈야?

포린트된 조음파 사진.

인아 인아  
 인아 인아  
 근데, 소영씨가 누구야~?  
 핸드폰 주인 이름이 덕훈이냐 그렇지. 버스에서 주웠다가. 관했어?  
 (경계) 그래서.  
 소영씨가 누구야~?  
 근데 소영씨가 누구야, 응? 덕훈오빠 핸드폰 아니냐 그러던데.

덕훈, 모든 척 밖으로 들어가는데, 인아 둘을 따라붙으며 묻는다.  
 인아  
 덕훈  
 너무 애절하게 울리잖아. 뭐 금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씨, (자기 핸드폰을 뺏으며) 왜 난의 전화 받구 그래.  
 인아  
 덕훈  
 그러게, 여자드라구.  
 여자.  
 인아  
 덕훈  
 소영씨가 누구야~.  
 인아  
 덕훈  
 혁. (인아 손에 들린 자기 핸드폰을 본다)  
 인아  
 덕훈  
 소영씨가 누구야?

“자기야~”, 하며 뛰어 들어오는 덕훈.

S#64. 덕훈 아파트 INT. 밤에서 낮

덕훈, 조르진 하면서도 일문은 활짝 폈다.  
 덕훈  
 (대음) 누구냐구.. 누구냐구..(첵컹 전화 끊기는 소리)  
 덕훈  
 김진호가 전화를 주면, 전화 가는 덕훈.  
 덕훈  
 (김진호에게) 전화 좀 조봐. 집에다 누구 왔다.

S#63. 회사 INT. 오후

인아, 덕훈을 묻려 침대 아래로 떨어뜨리면,  
 인아, 덕훈을 묻려 침대 아래로 떨어뜨리면,  
 인아, 덕훈을 묻려 침대 아래로 떨어뜨리면,  
 덕훈  
 (애환이 조른다) 누구냐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경파) 침대.  
 인아  
 덕훈  
 이씨, 누구 새끼야.  
 (뺨!) 관둬!

덕훈 (재경)

(성적을 원해서) 여보세요.  
저 한재경입니다.

덕훈

(혼잣말) 틀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덕훈

자만한다~, 자만해해~/

덕훈

(말을) 어우어우어우! 내가 뭐 어쨌길래... 열 번째. (두툼대지만 표정은 심란)  
저녁. 덕훈, 마물로 나오면, 설거지거리가 그대로 참여있는 부엌.

덕훈

인아, 대담 대신 문고리를 편각 하고 잠근다.

덕훈

배고파!  
라면을 먹고 있는 덕훈, 방문 소리에 고개 틀면, 기지개를 켜며 나오는 인아/  
인아, 예쁘게 차려놓고 혼자서 맛있게 밥을 먹는다./  
떡볶이. 젓가락이 들어오면, 인아 채하고 덕훈 젓가락을 막는다. 덕훈 "우씨".  
아랑곳없이 찻시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인아. 문 밖에 선 덕훈.

인아

S#65. 인아의 복수 몸타주-떡훈 아파트 낚부터 밥

겨울. 오후 한시. 시계를 돌려보던 덕훈 저녁저변 안방문 열고, 땀!

인아

밥을 하러구우~. 누가 뭐래? (침요) 조영씨가 누구야아~?

인아

떡훈 텅하지 않자, 조르기 모드 강화.

떡훈

잠구나?  
떡훈아하하하?

인아

잠야?

떡훈

(인아의 편에 텅하려다 그냥 돌아선다) 노프먼트.

인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떡훈

그대가 알 바 아니잖아.



덕후이 속도를 늦추지 않자, 인아 씨듯이 달려가 소맷자락을 잡는다.

인아

자기!

덕후, 못 들음 취 저버져변 걸어간다. 인아, 덕후를 따라간다.

인아

자기.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버린다.  
평평한 인아를 보자, 안도와 노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내려보던 덕후,  
인아가 천천히 미끄럼틀 위로 올라오고 있다.  
약탈당 칠계단 으르는 소리를 들린다. 덕후, 웅크린 얼굴로 고개를 들면,  
완전히 지진 몸짓으로 전화를 누르다 말고, 그대로 주저앉는다.  
미끄럼틀을 위에서 멈추니 하트를 보고 있는 덕후.

(복소리 관라진다)..무슨 린 있는 거야...? /  
(별뿔 인어나 다시 뻗) 너 진짜 이럴거야!(웅 뜻) 인아.. 너.. 진짜..  
린산으로라누 들어가, 응?/(울사정) 여보오~/

덕후

(호차탄)미지겠네, 정마원! 훌쩍누 아던 사람이 어디서 헤매는 거야아~.  
(지쳤다. 사정) 양진.. 아디야.. 진짜.. 무슨 린 있는 거야?  
(혈박 고조) 으몰 안에 안하면 레드카드다. 웅담 아냐야, (뻗) 왜! 못함 거 관애!/?  
(혈박)양진~, 이거 반칙이야~. 헬로카드야 헬로카드요! /  
(벼려) 아디야,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

덕후

덕후

룩이터 곳곳에서 음성 메시지를 담기는 점프컷

S#66. 덕후 아파트 앞, 룩이터 EXT. 저녁에서 새벽까지.

덕후

아니. 그럼 이 사람 어릴 간거야? 린산도 안 가구.

덕후, 다시 정신을 차리고 걱정이 우--- 물려오는  
부서지듯 내려놓은 전화기를 내려보다가

덕후

지... 지... 진짜!라암?! (벼려!) 뭘야!!

(계경)

(현글) 진짜 사람한테 애인이 생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덕후

(벼려) 참려! 그만 거 안 하나까/

(계경)

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던 말씀들 드려야 관애셔..

덕후

에? (얼 북북) 그만 하려 전화 했소?

(계경)

(웅손) 린전에 제가 응물했던 것 같습니다.

덕후

(혹, 짜르헤지는) ...뵤요... 또.



덕훈

오빠입니다. (똥)사준오빠. (재경부가 청하는 악수를 공순히 받으며)노덕훈..

재경

이 끝은.. 이 사람..

덕훈

(화?) 나?,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아. 안녕하세요.

재경

형님.

(경과)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덕훈모. 누나 내외. 조카 둘... 외근와르한 병실/ (경과) 덕훈이 '아가~'하면서 들어온다. 병실 안엔 낯선 사람들. 재경 부모가 와있다. 당황한 덕훈, 병실을 관 못 들어온 것처럼 나가려는 데,

덕훈

이런 순간을 편 듯이랑 나눠야한다니.. 췌이다! 췌! /

간격에 찻던 덕훈, 옆을 의식하곤 못마땅한 표정이 된다. 옆에는 재경. 아기를 안아보고 싶어서 안절부절. 덕훈, 잔뜩 마땅찮은 표정으로 아기를 넘겨준다. 재경, 원뿔 가능한 원론으로 받아 안는다.

덕훈

(똥듯이 감동) 아가~.

F.I. 똥지락 대는 아기. 덕훈, 간격에 찬 원론으로 아기를 받아 안는다. 아무 란 할 수 없는 감동이 덕훈의 원론을 채운다.

S#69. 산부인과 모자별친. INT. 낮

F.O.

덕훈

아가야~. 나오너라! 너만이 나를 이 짝은 수령에서 건질 수 있단다~.

행복에 겨워 죽을 것 같던 덕훈의 원론, 전전 회심에 찬 표정으로 바뀌며,

덕훈

와~. 아가야~.

행복에 겨운 원론으로 만사의 배에 귀를 대고 있는 덕훈.

S#68. 덕훈의 아파트. INT. 햇살이 밝게 드는 한낮.

덕훈의 원론에 취악-췌아지는 똥. 창밖 시점. 소영, 덕훈의 뺨을 짜악! 들거공 음악이 터지며,

S#67. 카페. INT. 오후

인아 (타박)자기가 누이제 애 아빠다. 언제까지 이놈 저놈 할 거야?  
 덕훈 (다정하게) 그 뚱은 누구 편이야?  
 인아 나 알아서 그래. 나뭇 뺨뺨으로 태어났다.  
 덕훈 (천연덕) 우리, 지원이, 지단 알아 그런지 머리칼이 없네~  
 덕훈 아니다. (경신 빼짝 차리며) 노.지.원. 노우. 지단 넘버원~  
 고도로 뚱을 위한 책략인지 모른다.

인아 (아기를 보며 부른다) 노지원~  
 덕훈 (폐재! 헤벌쭙) 내 편이란 소리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재 지단 이플릉!

덕훈 지단 넘버원? (화썩) 영. 좋네. 아~주, 뜻이 짝네.  
 인아 응. 지.원. 지단 넘버원~!  
 덕훈 (기대) ...나?  
 인아 (심만) 자기 생각해서 지은 건데.  
 덕훈 아니, 그레누 편래미 이름인데, 풀 이빨개/  
 인아 왜, 털로야? 무지 고심한 건데.  
 덕훈 지원이? (썩 맘에 들진 않는지) 노지원이?  
 인아 지원이. 아기 이름...  
 덕훈 (여유를 찾았다) 안다아~, 조심하고 있다.  
 인아 거긴 조심해야지. 음구멍.  
 덕훈 (화썩) 아고, 깜짝이야.  
 인아 (문 열고 들어서며) 자기!

덕훈, 손에 테잎을 판아취고 방바닥에 붙어 뭔가를 찾는중. 헛지가 양은 듯.  
 덕훈, 아기의 머리를 안타깝게 매만진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

S#70. 덕훈 아파트 INT. 낮

덕훈의 눈에 불뚱이 된다.

재경모 (재경부를 아기 쪽으로 이끌며) 봐요, 재경 아부지, 아주, 지아빠 얘기때랑 똑같네.  
 덕훈 예. 하하. 인아가 외박을 해서요. (재경을 톡치며 너스레) 축하해. 자네.  
 재경모 (인아와 덕훈을 번갈아보며) 모르는 사람이 봐도, 찻줄인줄 알겠네.  
 아, 외사촌 오빠니다. 하하. 사장이름.  
 외사촌끼리 축 빼 달았네요, 아주.

똑 같애. 찻줄은 못 축여~.

역훈 (일단 수를) 됐다, 됐다, 해보나마나다,  
그땐한테서 이렇게 전사 같은 편래미가 나올 수가 없지. 암. 아암.

인아 곤에서 곤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표정은 점점 단호해 지는데, 곤물은 더 졸졸 흐른다.  
역훈 음 피해 범공음 듣고 나가려는 인아.  
역훈, 인아야. 지원님만마를 번갈아 부르며 붙잡는다.

역훈 너무 한 건 나야. 이걸 나한테는 절대적인 문제야. 왜 그럴!  
자기가 아이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잖아.

인아가 재빠르게 지원을 뛰어챈다.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올린 역훈, 이내 상황을 깨닫고 다시 지원을 되찾으려 한다.  
일찌들과 가벼운 쟁쟁이가 함께 떨어진다.

인아 (단호) 됐어. 그만둬. 여기서 끝내.

...  
... 단 정만.. 상산누 못했... 어떻게 그런.. 그런....

인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노여운 얼굴로, 역훈을 무섭게 노려본다.  
노려보는 인아의 눈에 곤물이 그렇게 보인다. 역훈, 멍하니 있다.  
역훈, 뜬눈으로, 수비적으로 지원을 꼭 감싸 안고 인어를 들춰 등진다.

역훈 (버럭) 언제까지 이게 내 새끼 똥의 의심의 논조리로 볼 수는 없더냐!

인아 (서공하고 노여워서 말은 잊지 못하고) 자기... 자기...  
(당당) 그래!

역훈 자기, 지금 지원이 머리카락 찢구있던 거야?

인아 방법? 무슨... (테입된다. 알았다. 왜! 하고 탄진다)  
역훈 우리야? 좋아! 그래!~, 나두 방법이 있어, 누를 등신으로 양아?  
여기 있는 건, 뺏오가 있어서야...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

인아 지단은, 재경썬 딱히 좋아하는 선수가 없어서야,  
먼저 알려준 건, 당선이 형님이니까 그런 거고,  
육기 전에두 우리집에 죽었구, 지금누..

역훈 (황군) 려 말이라구 해? 애 가진 것누 나한테 썬 먼저 알려주구,  
인아 자긴, 왜 그렇게 찢을에 찢좌해? 재경썬 아이면 안 돼?  
역훈 이씨! 그럼 왜 지단이야. 그 새끼 좋아하는 걸루 하지.

인아 (한심한듯 쳐다보면)

역훈 내 새끼긴 거지? 그치, 그치?

인아 그 끝.

역훈 어떻게 부르는데.  
재경썬, 한번도 그런식으로 부를 적 없다.

덕훈, 아이 없는 곳으로 인어를 불러온다.

표호자2

어쩔 그렇게 돌이 꼭 돌아 있다야. 부럽다, 부러워.  
아이구, 짧은 새댁이 예쁘고, 맘도 재밌게 하고... 호호호.  
우리 신랑 아니었으면 우리 완전 죽는 거였어요.

표호자1

덕훈의 원혼을 물수건으로 대 인어.  
덕훈, 다리에 캔스를 하고 누워 있고  
어 주변에 환자와 표호자들이 박수를 친다.

공을 이단 방법으로 내려와 구르는 거였어요.  
환준으로 나를 끌어 안고 환준으로 아기를 편아서  
공간을 -- 단라서 우리 신랑이 질병을 떨쳐기르 투 쳐면서

인아

원뿔이 아이를 하고 있는 인아

S#71. 병원 인원진 INT. 낮/밤

(비료소 눈물 섞인 비명이 터진다) 아으응!!!

덕훈

덕훈의 다리가 소파에 걸쳐져 있는 것. 뻘뻘.  
인아의 양팔이 허리를 향해 뻗어 있고(지원을 볼르고 있고)  
추락한 두 사람, 이틀리안 샵리리에 자세다. 단지 두가지가 다르다.  
인어는 지원을 받아안고 덕훈 위로 올 뻗어진다.  
덕훈 자신은 넘어지며 지원을 다시 인어에게 받고  
덕훈의 손에 걸린 지원의 담요가 떨어오자  
덕훈, 인어를 볼르고 어어! 뒷걸음질. 절정적으로 그만 소파에 걸린다.  
순간 덕훈의 힘이 밀려 반공이 떨어지며 두 사람, 응시를 하고  
덕훈은 지지 않으려고 반공을 가로막고 지원을 안은 인어의 팔을 볼른다.  
인어가 지원을 안은채로 마부가내인 덕훈을 밀어내려 하고

... 아나야?

덕훈

(어이 없다, 한심하게 바라보면)...

인아

(소리친다) 내 딸이야!!!!!!!

덕훈

지원이 내 딸이야.

인아

지원이 내 딸이야. 니 맘대로 어틸 가.

덕훈

비켜주세요, 노덕훈씨.

인아

안돼. 못 가.

덕훈

(오회려 절망) 그건 똑같은 소리잖아...

인아

덕후이 지르는 소리에 별칭 환자, 간병인이 모두 턱걸이처럼 울었다고

덕후  
인아  
덕후  
인아  
덕후  
인아  
덕후  
인아  
덕후  
인아  
덕후  
인아  
덕후  
인아

(비행) 아빠가 아빠야?  
아빠나간 아빠를 나는 건데 뭐가 아파.  
지원이기가 그놈이 아빠를 안잡아어어어.  
안돼. 백인도 안 잡아...  
아,아,아, 물어라아.  
몇 번을 만해요. 원래 병원에 얘기/  
이... 에이... 지가 뭔데... (베개로 얼굴을 가리며) 오를 데려오라 그래.  
방구방구 웃으면서 관 먹더라.  
?  
와하. 재경씨가 오를 처음 이유식을 먹여봤는데  
(빠진 목소리) 지원이 관 있대?

인아, 전화를 끊고 덕후 걸으며 오면

재경씨도 밥 관 채겨먹어요. 행사 고맙구...

덕후, 듣고 있으면서 모르는 걸 꾸~.

응. 지원이는? 응.

(경과) 님. 전화를 받는

환자복 안으로 손을 넣어 조물락 조물락.  
만항할 수없는 덕후, 간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예쁘게 잠든 두사람. 그 모습 그대로 아침이 된다.

(인아 흉내) 히.  
애구. 우리 애기.

인아, 덕후를 힐끗 보고는 이내 입을 선선하게 찮는다.  
인아, 커튼을 치고 환자 침대위로 올라온다. 덕후, 오히려 주변에 눈치를 보고  
인아, 덕후 옆에 누워 껴안고 덕후를 재운다. 아나, 장난을 친다.

자기. 밤새 나 혼자 돌거야?

밤) 물까지 별칭. 인아, 노트북을 켜놓고 옆에 옆중한다.  
그 모습이 사무실에서 밤새 혼자 일하던 몇 년 전 그 모습과 닮았다.  
덕후, 그런 인아를 새삼 사랑스럽게 훑쳐보지만 입으로는 또 투정을 한다.

나 퇴원해. 묻지마. 물라. 나 퇴원해.  
 령면 몸을 일으키며 환자복 단추를 푸는 덕훈, 환자복엔 단추가 없다. 에이---

마침 들어오던 간호사가 물란다.  
 인아, 아이 없어 그냥 바라본다.

S#72. 덕훈의 아파트 INT. 낮

원판문을 읽어주는 재경. 지원을 안고 서 있다.  
 인아의 부축을 받고 들어서서 덕훈, 재경을 슬쩍 내려보다가 외면하고  
 덕훈에게 지원을 안겨주는 재경. 덕훈이 빼앗아 안았다는 게 더 밋다.  
 덕훈이 좋아 죽는다. 하지만 정작 지원은 덕훈을 뒷걸어한다.

오르르르르~ (대중 열르르) 아빠 안 보고 싶었재? 보고 싶었재?  
 아빠, 해봐, 아아빠! (지원 뺨, 하고 운다)/

다시 재경이 안으면 룡똘을 떼준다.

다시 취 박박.

덕훈이 안으면 아이가 다시 온다.  
 하는 수 없이 재경에게 아이를 던지고 재경이 지원을 찬 진정시킨다. 오르르르르. 까꿍.  
 룡똘에 물타는 눈으로 바라보는 덕훈.

(재경에게) 볼 린 다 봤으면 가쇼. 가라구.

화장실. 담자 사용 후 모드로 변기 뚜껑이 두 개 다 세워져 있다.  
 물품 가능기도 불편한 덕훈, 변기를 내려보다 오르르르르. 누기 전에 룡똘부터 한번 내린다./  
 부엌. 재경과 지원이 식사한 흔적이 그대로 있다/  
 거실에서 인아가 지원의 옷을 찬아 입히고 있다.  
 안방 룡똘 여는 덕훈. '철마. 여기까지.' 하는 눈으로 쳐다보다가 지원이 붙는 자리 위  
 천장에 매달린 포털을 보고는,

(벼락) 이 자식이!

덕훈, 거의 서커스 하듯이 쾅쾅 하며, 다들 포털을 닫고 있다.  
 바닥에 던져져 있는 재경의 포털.  
 인아, 룡똘을 끼고 덕훈이 하는 양을 한심하다는 듯 보고 있다.

덕훈

덕훈

덕훈

덕훈

덕훈



(경파) 아찔. 아직 캡스를 한 턱푼이 소파에 앉아 지원을 안고 우유를 먹이고 있다. 고전하며 기저귀를 바꾸는 턱푼. 사방에 변이 묻는다.  
 이럴사리 뭉클을 시키는 턱푼.  
 아이를 경우 경우 계우는데 전화가 온다. 열을 받는

턱푼

(소곤)응.

(인어)

지원이 자야?

턱푼

거의 완료구 해.

(인어)

자기 괜찮아? 괜찮았어?

턱푼

하루 이틀이야? 이제 산수 다 봤어.

(인어)

나 내일 새벽까지 보안작업이라 연락이 안되니까 그러지.

턱푼

자기 걱정이나 해.

(인어)

혹시 뭐 일 생기면 재경씨한테/

턱푼

(버럭) 아! 됐다고. (턱푼, 소리에 아기가 선잠에서 깨 보챈다)

(인어)

안았어~

턱푼

에 웬잖아. 끝아.

턴래는 턱푼, 자꾸 보채는 지원이가 좀 이상하다.  
 지원이 이따금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다.  
 연속 전화를 하는 턱푼.

턱푼

(메시지) 지원이가 이상해서 그러거든.... / 메시지 받거든 연락해요.

턱푼

뵈해, 당신? 경기를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 미치겠네.

분격하게 불안해지는 턱푼.

### S#73. 턱푼의 아파트 앞 EXT. 낮

현관앞. 후다닥 달려와서 지원이를 받아 안고 돌아서 뛰는 재경.  
 북반 쪽으로 주차장으로 쫓아가는 턱푼.

턱푼

이봐. 이봐. 관이 가아아아아.

관상관이 떨어지는 재경. 아득히 떨어진다. 에이 씨----

### S#74. 응분선 INT. 오후

북반을 쫓고 달려들어가는 턱푼. 그의 시야에 떨어  
 불도륜. 소리소리 치며 의사와 간호사를 부르는 재경이 보인다.

나란히 앉아 볼까? 두 사람이 보이고 그게 멀리서 나타난 인어의 시선임을 알게 된다.  
인어를 발견하자마자 덕훈, 바로 무뎌봐! 포드포드 완전 전환한다.  
다가오는 인어, 처음에 의아해하는 표정이다가 슬며시 웃음이 번진다.

덕훈  
재경  
덕훈  
재경  
덕훈  
재경  
덕훈  
재경  
덕훈  
재경  
덕훈  
재경

지나가게는 사람 볼수록 물어보지? 노미라가 단지, 노지원이기 단지?  
에, 지원이보아야 낫죠.  
미이라두 아니구,  
(기분 괜찮다. 그러나 린트는 여전히 턱턱) 짜에이, 미~라가 뭐가,  
(아쉽다는 듯) 근데, 인어선 지단을.. (똥) 서공했어, 무지.  
(린트) 없긴 왜 없어요. 있습니다. 불러타니.  
특별히 좋아하시는 선수가 없드니.  
(덕훈이 보편) 지단두 좋지만, 역시..(선수는..) 불러타니.  
지원이 이틀이요, 미라 아떨나고 했었거든요. 미셀 불러타니, 미라.  
(똥)... 미라?  
(모든 척 한 끝으며) 미라 아떨요? 지원이 린구.  
(화!) 흥나이! (버려!) 흥당은 내가 왜 앙(신!)...  
(명랑하게) 흥당!

지원을 태운 유모차를 바람처럼 이리저리 돌려주고 있는 재경이 보인다. 원진하다.  
저렇게 좋을까? 지원이 이뻐죽는 재경. 덕훈, 뼈죽거리며 보는데 다가오며

S#75. 원산 유원 EXT. 저녁

간장이 풀려선지, 덕훈 "나.. 참.. 하" 하며 꺾, 웃고 만다.

재경  
덕훈  
재경

이렇게 멍정한 애를 간절이라고... 려혀.  
이런 일로 응급실 온 사람은 쥘 봤대요.  
?  
저 오를 마보 봤어요.

갑자기 목 웃는 재경. 덕훈이 보편

재경  
덕훈

(민망한지 웃음 짓고) 드느라고.  
아무 일 아니래요. 원래 얘기들이 힘주고 부르트 똥고 그런대요.  
(조근조근, 그러나 밝하게) 뭐라는 거요.

덕훈이 도착할 때쯤 재경은 이미 머리 숙여 인사하며 돌아옵니다.  
흥분했던 재경, 고개가 점점 수그러진다.  
그런데 밝하게 나온 의사와 간호사가 뭔가를 차근차근 설명한다.

혈! 들리! 저 진짜, 서공합니다.  
 건진호 노파장님이야 말로... 진짜... (담담한지 맥추를 단숨에 들이키고는)  
 턱홀 혀. 뭐냐, 이 손 위치...  
 건진호 (턱홀의 손등 꼭 잡으며) 힘내세요~  
 턱홀 아까부터 왜 그러냐, 너. 면 해가지구.  
 건진호 (무슨 말도 안 되는 권공이나 표정) 혀! 그림, 애 어빠가 안가면 누가 가냐.  
 턱홀 (더욱 조심) 노파장님도... 가시게요?  
 턱홀 담담 7원. 약속 잡지마라.  
 건진호 (어색) 아~. (이상하다는 듯) 지원이 틀~이요?  
 턱홀 (관잖아서) 차~. 됐다, 암마... 관! 지원이 틀에 꼭 와라.  
 건진호 (한숨) 관~. 사는 게... 관..  
 턱홀 나? 힘들지. 다리에 적고 타고, 애 불라... 쥘 치우라..  
 건진호 (안쓰럽단 듯이) 힘드시죠?  
 턱홀 집사람이 뭐.  
 건진호 (화제를 바꾸는 듯이) 형수님은 어떻게..  
 턱홀 간단에 들근했다고 왕따 못냐?  
 건진호 (슬픈 슬픈 눈치만)  
 턱홀 뭐냐, 느를...

턱홀과 건진호 둘을 마시는 중.

S#77. 회사 안 카페 & 바 INT. 밤

턱홀,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다.  
 양릉 보면,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픽이팀!' 포즈를 취하는 건진호.  
 모니터에 죽지가 된다. 클럭하면 건진호가 보낸 쪽지 - '힘내세요!'  
 모두 뭔가를 쉬쉬하는 분위기.  
 턱홀, 이상하다는 듯이 사무실을 둘러보면, 건진호 끝 아니라 직원을  
 건진호, 어색하게 옆을 고개를 숙인다.  
 사무실. 일하던 턱홀, 잠시 허리를 펴면 턱홀을 보고 있던 건진호와 눈 마주침.  
 턱홀 야. 오랜만... (준잰) 뭐야, 이거? /

아직 불편해보이는 다리로 들근하는 턱홀, 하지만 옆쪽은 활기차다.  
 그런데... 자판기 안. 수대를 펼던 직원을, 턱홀이 나타내자  
 겨우 인사만 건네고 슬금슬금 자리로 돌아간다. 이상한 분위기.

S#76. 턱홀의 회사 INT. 오후

관력. 7월에 처진 동그라미를 타들어 관 듯 바라보는 덕홍. 권에 걸흔 사진.

덕홍, 퇴근하고 몸을 들이서면  
지원 안은채 덕홍 물에 안기며 "아~ 우리 신랑 뵈세~" 하는 인어와  
표이지 왕게 차가공 열음론의 덕홍.  
인어, 포옹을 품며 지원을 덕홍에게 안긴다. 덕홍 물에 안긴 지원,  
관간이 꼬차하는 덕홍. 지원은 물에 꼬우, 부서져라 꼬우 꺾안는다.

S#79. 덕홍 아파트 INT. 저녁 / 밤.

화면가늌 기사가 보인다. 제인 도드라지는 건 재경과 인어의 사진.  
다정하게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찍은 사진이다.  
공은 표정의 덕홍, 기사를 본다.  
'지단체 건축 설계용 프로그램 <기어아프만>으로 영계 내 다드호스로 떠오른...'  
'부부가 나란히 관은 린을 가는', '회의요? 사는 게 곧 어이디어 회의표.'  
원칙히 다음 페이지로 넘긴다. 무엇을 봤는지 열음란이 굳어지는 덕홍.  
원산 호수 공원을 배경으로 인어와 재경이 지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계절 물에 안긴 지원 활짝 웃고 있고 그 아래, '한재경, 주인아 부부와 땀 지원양.'  
끝으로 타들어관 듯한 덕홍의 눈. 잡지 표지명 'PROGRAMMER.'  
표지에 쓴 기사제목, 'Life & Program - 부부 프로그램, 한재경 주인아.'  
덕홍, 잡지를 구기듯 움켜쥐었다가... 들쳐들 미동도 하지 않는다.

S#78. 택시 안 INT/EXT. 밤

덕홍 (여리둥원) 서공하진 뭐(가).  
관진호 (만 꽃으며) 아. 후격의 요들 세상, 이혼이 뭐 별 겁니까? 예?  
덕홍 (상황 파악이 안 된다)...?  
관진호 처한태까지 숨기려 가 뭐 있습니까.  
덕홍 ...!!!! (린론 굳어짐) 뭐!!!  
관진호 그 말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 (덕홍 표정이 이상하니까 예?) .. 뭘수(님..)  
덕홍 (버력) 무슨 소리냐구, 그게!  
관진호 아냐.. 그게.. 도파장던이랑... 뭘수...  
관진호 (부시력 부시력 가발을 뒤지며) 이상하네.  
관진호, 가범에서 꺼낸 잡지를 내민다.

인아

(서두르며 걱정) 아떡헤~, 너무 늦었쥬.

재경, 덕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안는다.

S#83. 재경 쪽 들잔치 장소 근처 대로. EXT. 조저녀

덕훈 일가를 포함한 모든 하객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들잡이하는 지원  
인아, 옆사람의 "축구축~, 축구축~" 응원음 한다. 그런 인아를 보는 덕훈.

S#82. 덕훈 쪽 들잔치 INT. 낮

(경과) 스탠드만 켜져 있는 어두운 방.  
호적음본, 확대한 백인사진 등을 서랍함속에 담은 덕훈.  
천원의 일이나 책장 위로 손을 뻗어 숨겨두었던 물북을 꺼낸다.  
권봉에 'HG 유전자 센터',라고 적혀있다.  
물북 열고 종이를 펴면, '친자감별 검사 결과 ... 친자로 판단됨'이 보인다.

덕훈

(활짝 웃으며) 이쁘네~.

인아

넌 이쁘겠지! 우리 지원이.

인아 양쪽뺨은 아기 드레스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온다.

덕훈

(간정 수줍) 아.

인아(OFF)

자기, 거짓어?

수줍 맞게 눈물이 썩 들려는데

덕훈

(지원을 쓰다듬으며) 우리 지원이... 아빠어... 앓빠...

같은 지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덕훈.

S#81. 덕훈 아파트, 작은 방. INT. 밤

(동사무소) 물려되는 호적음본. 음본에 이름을. 노덕훈, 주인아, 노지원.  
보면, 인아와 덕훈이 지원을 안고 껴은 백인사진.  
(사진관) 덕훈, 굳은 표정으로 사진을 내밀며 확대를 부탁한다.

S#80. 병원, 사진관, 동사무소, 집 (움타쥬) INT. 오후

순간 장내 이수라장이 된다. 재경, 덕훈을 만류하려 하다가 재경모가 “이게.. 아니, 이게...” 하며 비틀거리자 어머니를 부축한다.

덕훈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그리고 지원은.. 내 편입니다.

덕훈, 아랑곳하지 않고 서부용복 안에 증거물을 꺼내 보인다.

지원 당선... (문노로 또거위지며) 당선이...

이유고 덕훈, 임용 공개 다물고 논릉 지켜 본다. 덕훈, 물결이 한 장의 풍미를 놓는다. 지원이 그 풍미를 친는다. 풍이를 뛰어쳐 보고는 연이름는 인아, 그리고 재경.

덕훈 그래, 아빠야...

장사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열어붙는 덕훈. 뺨지만 긴 망설임. 안아달라고 손을 벌리는 지원.

지원 알빠...아. (기슴이 메는) 지... 원아.

물집이가 시작된다. 화기에애, 좌중의 관심은 온통 단상 쪽에 쏠린다. 우측 선 덕훈, 단상을 향해 축적 나아가기 시작한다. 인아, 덕훈을 발견하고 활짝 반기는 열론이다가 덕훈의 표정이 이상하자, 쉼마... 하는 불안이 있는데, 상황파악이 안되기는 재경도 마찬가지. 재경의 친지를, 여전히 박수를 치며.. 순진한 눈으로 이방인을 바라본다. 지원이 덕훈을 알아보고 입을 뻗듯 떤다.

덕훈 투름 시스템의 감독은 둘 중 누가 풀을 넣든 상관없다. 하지만... 기록은 정확해야 한다. 풀을 넣은 선수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커다란 서부 용복을 가슴에 안은 덕훈이 연회장 입구로 걸어 들어온다. 한재경, 주인공의 딸, 한지원'이라는 풋말. 피시 웃는 덕훈.

S#84. 재경 쪽 들잔치 INT. 저녁

덕훈, 동의하는 듯 기꺼이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다. 웬지 섹투하다.

지원 아니. 당신이 힘들어서 큰 일이죠. (덕훈에게)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 집에 생일을 다르게 한 걸 그랬어요.

재경

해한 현존의 턱종이 현존하고 있다.

S#87. 회사 INT. 오후

를 꺼진 거실. 소파에 쪼그려 누운 턱종. 승숙여 웅고 있다.

S#86. 턱종의 아파트, 거실. INT. 밤

계경을 뒤로 하고 걸어 나오는 턱종, 현존이 일그러진다. 눈물을 참는 거다.

계경 그 기사... 그 거 쓴 기자, 사준형이예요. 형이 그냥 쓴 거예요.  
집 사람 잘못 아니예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벤티에 나란히 앉아있는 턱종과 계경의 뒷모습. 둘 다 미동도 없이 앉아있다.  
턱종, 말도 못하게 조해하다.

S#85. 턱종 아파트 근처 택시 EXT. 낮

턱종이 주문에 걸린 듯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인아 천천히 계단을 내려간다.  
그리고 점점 빨라지는 인아의 발자국 소리.  
정신을 차린 턱종이 인아를 찾아를 때는 인아, 이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F.O.

인아 (무척계) 움직이지마!  
턱종 인아야  
인아 얼마나 ... 얼마나.. 애했는데.. 당신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했는데!  
턱종 (절규) 너희들이! 너희들이.. 난 가지구 돌아와! 내 모든 걸 훔쳐갔다구!!  
인아 (싸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길 바래.

계단 한 층을 사이에 둔 택지.

인아 오지마!  
턱종, 계단으로 인아를 따라 뛰는데, 한 층 아래서 인아의 목소리 들린다.

턱종 (인아를 따라 나서며) 사!

턱종을 노려보던 인아, 돌연 지원을 안고 바람처럼 인파를 헤치며 장내를 빠져나간다.

(다른편) 덕후이 문음 열면, 캔맥주가 은 편의점 용지를 든 채경이 서 있다. 덕후, 들어오라고도 가라고도 못 한 채 경이 서 있다.

덕후 (재경) 열소. (전화 끊는다.)  
 (재경)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덕후 (덕후를 등미시 본다. 조금은 당기는 표정)...  
 (재경) 네... (어색) 보셨.. (다시 주저..) 아.. 뭘레 전성기 동영상이 새겨셔요.  
 덕후 ... 봤소.  
 (재경) (담이 없자) 저.. 방금 지단이..

덕후 (논 꼭 감은 채) .. 나만들이나 의프공 사내..  
 (재경) .... (주저하다) 저.. 방금 지단 문 보셨어요?  
 덕후 ...  
 (재경) (다시) 여보세요?  
 덕후 여보세요. (전화기 안쪽, '여보세요' 소리에 논을 쿵쿵 잡는다.)

현영... 맥주를 한모금 마시는데, 전화가 온다.  
 (인아 자리로 영덕이를 뽐기며 용내) 공 좋았네~  
 (자기자리로 와서 뽐면 일어나 크게) 와~iii  
 덕후 인아가 앉았던 열자리를 푼꼬리미 돌아보는 덕후.  
 뽐빈 공간에 용리던 함성 맥없이 사그러든다.  
 덕후, 뽐면 일어나 만세를 부르며, '와~iii' 함성을 지른다. 표정은 무표정.  
 덕후, 혼자서 클럽 축구를 보고 있다. 레알의 지단이 헤딩공을 넣자

S#89. 덕후의 첫 INT. 한 밤중

덕후 관 데가 없다.  
 덕후, 신호를 기다리다 말고 돌아서 권릉 따라 걷기 시작.  
 횡단보도에 서 있는 덕후. 거대한 트럭이 위협적으로 지나간다.

S#88. 때로 EXT. 저녁

덕후 아내가 사라진지 몇 달 만...  
 자리에서 일어나서면, 뽐뽐 직원 열근 고개를 숙인다. 여전히 덕후를 의식하는 분위기.



덕훈  
 단 더 사랑해.  
 그래서 인이씨를 사랑해요... 함을 들린 줄 아는 우리 인이씨.  
 적이 꼭 적인가? 적은 또 움직이지 않아요. 같이 문음 향해 뛰니까.  
 모두가 하나가 돼서 문음 향해 달려가는 집단적 황홀감 같은 거.  
 제 생각에 한국축구는요... 축구를 즐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허덕크 그러잖아요, 문결정력 부족은 전 세계 모든 팀의 문제다.  
 그죠. 문결정력 부족. 근데 전 그 애긴 들음 때마다 항상 그래요.  
 (우씨.. 포클릭) 문결정력 부족.  
 재경  
 거봐요, 형님이 낫지. (빙그레~) 형님.  
 덕훈  
 (꼬박꼬박 덕훈씨가 막상 거슬려 쳐다보면)  
 재경  
 덕훈씨. 덕훈씨는 한국축구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구요, 네? 덕훈씨.  
 덕훈  
 아~, 그 형님 소리 들춰치고~.

이번엔 재경도 좋아 웃었다. 훨씬 친근해진 분위기.

S#90. 경중죄 INT. 밤

덕훈  
 턱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재경  
 인이씨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 외엔 아무것도 아니예요...  
 덕훈  
 제 죄는 형님을 피롭게 한 거니까... 우리가 받는 벌은...  
 재경  
 그치만 그런 건 아무 짓도.. 형님 죄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한 거구,  
 그런 게 문제라면 저누 마관가지죠. (미소) 집안에서.. 저누...  
 덕훈  
 (자조) 한 테면 해. 맺가는 충분히 치르고 있으니까...  
 재경  
 예.  
 덕훈  
 (풍이 죽어) 턱 원망하나?

(경과) 나란히 앉아 슬픔 머시는 덕훈과 재경. 덕훈은 많이 취했다.

재경을 보는 덕훈. 재경의 맘에 확연히 마음이 움직인 듯. /

덕훈  
 ...  
 재경  
 늦은 시간이라 들고 오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뚝) 씩은,  
 덕훈  
 력으로 보내줬잖소.  
 재경  
 (응원거리듯) 지단은 대들림에 출마해도 당선될 거예요...

(경과) 력드를 누비는 지단의 모습이 가슴이 가득한 동영상이 나오고 있다.

베치에 앉아 있는 덕훈. 향운권을 내려다보고 있다.  
손으로 림면, 향운권은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다.

S#93. 원산 호수 공원 EXT. 공동장

덕훈 아내다웠다.

우편함에서 쫓힌 국제특송우편물. 익스프레스(EXPRESS) 도장이 선명하다.  
문어보면, 누클랜드해 향운권.

S#92. 덕훈의 아파트 1층 월관 INT. 아침

덕훈 구원의 빛은 두 달이 더 지나서야 한국에 왔다...

동트기 직전의 푸르스름한 새벽.  
생각에 잠긴 채 가포수 림면 걷고 있는 덕훈.

S#91. 대포 EXT. 그랑 새벽

덕훈

(들리듯 다시) 저두 이제 미라 님입니다. 님 님 미라기도 하죠. 미라.

재경

님, 그러니까 지원이 제 딸 맞잖아요. 나두 이제 미라 나아지.

덕훈

...  
제가... (원진한 미소) 결혼하기 전에 결혼두 물렸잖아요..

재경

그럼 그게 무슨 행복일까 싶었어요. 한심하다니까지 생각했거든요.  
사람들 보면 다들 아이가 돌사이에 전부가 왜버리더라구요.  
(뚱지원이기 생긴 때까지... 전 그게 뭔지 물렸거든요.  
... 저할 피임을 했거든요.. (부끄러운듯 미소) 저 때문에.....

덕훈

(왜 하든) ...?  
그지만 한 순간두 지원이가 제 딸이 아니라고는..

재경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덕훈

...!!!

재경

지원이.. 생물학적 아빠가 제가 아닌 거...

덕훈

?

재경

(불쑥) 저 알고 있었어요.

덕훈

침에 가라. 너. 이씨.

재경

헤헤! 저두 더 사랑합니다!

권정릉 보고 누워있는 덕후. 눈만 깜빡 깜빡.

S#94. 덕후 아파트 INT. 밤

덕후

(편의 좋아서 하는 말) 죽었어, 아주, 그냥~.

덕후, 대답없이 비를 음미. 점점 기분이 가벼워지는지 조금씩 웃음이 배어나다가,  
뭔가 그토록 유쾌한지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리고는,

재경

(당연하단 듯 고개젖다) 아니, 형님은요? 형님, 그런 취미 있으세요?

덕후

봤나, 안 봤나. 것만 말해.

재경

예? (무슨 소리란 듯이) 하. 뭘~개 벗구요~?

덕후

(물쭉, 의심스러운 눈조리로) 뭘개 벗고 비 맞아 봤나?

재경

비 맞고 하는 게 특히 재밌잖아요.

덕후

(쩍) 큰까지 말이 안 통하는구만.

서로 공평하게 쿨을 털을 때가 있다가나가요.

재경

네. 나름 공평해요. 온 두개로 하는 거요. 우리는 저쪽에, 저쪽은 우리 쪽에

덕후

(이야) 좋아?

재경

네.

덕후

자네 혹시 큰대축구 좋아하나? 온 두 개로 진흙밭에서 단장관/

재경

(비를 즐기듯) 아~

(경파) 공동장 옆. 공원 정자.  
캠백주를 마시는 두 사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다.

덕후

들구 있네~.

덕후, 희희대며 노력한다. 아랑곳없이 안정환의 반지 세리머니를 하는 재경.  
덕후의 웃음 철썩게 가로채는 재경, 재빠르게 큰대를 향해 수렁한다. 쿵인!  
천천히 걸터헤지는 둘만의 경기. 땅을 뽀뽀 흘리는 두 사람. 덕후가 신나게 드리블 한다.  
웃음 띠기 시작하는 재경. 자연스럽게 덕후, 수비하기 시작한다.  
둘러싼 웃음 돌아보면, 웃음 잡는 한. 재경이다.  
아무렇게나 웃음 빼! 자 털는 덕후. 큰대를 맞고 뿔겨 나오는 온.  
다시 드리블. 그러나 아무래도 혼자서는 심심한 듯,  
축구공을 가지고 혼자 노는 덕후. 상대방을 피하듯 오리조리 드리블을 하다가 쿨을 털는다.

공동장 구석에 웅인 축구공이 보인다. /  
다시 안주머니 끈이 항우권을 털는 덕후.

덕후

아내의 속제는 간단했지만 나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엔딩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며 안대를 하고 나란히 앉아 있는 재경과 덕훈.

S#96. 에펠포그-황궁기 안과 뉴런랜드의 상상 피차

덕훈, 인어사서 황궁이 가면 재경이 "칸이 가요~" 하며 따라붙는다.  
안으로 두 사람 떨어져지며,  
그... 울던 소리 들... 어우, 울던. 그런 직사 사람이...; 아, 큰제... 하며 계속 투닥거린다.

덕훈  
재경

형님. 들어가셔야죠.  
(간짜) 형님은!

다시 혼자 멍하게 이런저런 생각에 잠긴 덕훈의 원론 위로

이럴 땐 나도 뭐마다 공을 찾다. 더위도 상관없고, 추위도 상관없었다.  
축구화 따위야 없어도 상관없었고, 큰매도, 운동장도 필요 없었다.  
내게 필요했던 건.. 오직... 운. (똥) 오직.. 오직.. 하나.

덕훈

덕훈, 어림없는 생각이라는 듯, 머리를 툐다. 보편  
덕훈, 재경과 나란히 앉아서 모니터에서 나오는 축구중계를 보고 있다.  
공간에 빈민가 문목권 아이들이 공을 차는 모습이 나온다. 다큐멘터리인가보다.

S#95. 인취공학, 탑승 대기석 INT. 오후

덕훈 안 그럴려 하는데도 머릿속은 벌써 그림을 그려보고 있었다.

덕훈

<인서트5> 덕훈의 맘에 따라 그려지는 집 내부구조.

침은 이층으로 하고.. 내부 계단은..? 침대 안 돼!  
그래, 계단은 곤란하지.. 당연히 일층은 우리 끼고.. 밭은.. 밭도 따로 먹어야지.

덕훈

<인서트2> 거리를 두고 따로 지어진 두 개의 단층집.  
<인서트3> 집 하나에 뒷마당 텐트. 재경이 불편하게 기어 나온다.  
<인서트4> 이층집. 아까와 같은 집인데, 음만 하나 더 들려진.

다시 방안. 덕훈, 돈을 한번 켜봐.

<상상 인서트1> 뉴런랜드 바닷가에 있는 일 층집.

END

턱훈

아내가 보고 싶다.

황윤기 안에 두 사람 영이 썩 떨어져지며 귀에 걸린다. 똑 같은 꿈을 꾸나보다.

조독의 조원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지원을 안고 두 사람을 기다리는 인어의 천사 같은 모습.

바다를 넘어간 CA, 그 문엔 파도치는 천벽, 그 천벽을 타고 올라가면 그림 같은 침.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운동의 만물산처럼 드넓은 바다 풍경이 펼쳐진다.

우리 얘기나구? 천만에... 죽구는 죽구일 뿐!

이대로 영원히 경기가 계속되기만을 바라던, 그 조마조마했던 마음 뿐...

이제나구?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거라곤

생각해보면 죽구도 미운 놈하고 해야 제맛이었다.

미운 놈이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니다.

턱훈

재경이 기대면 똑 하고 믿어 낸다. 그러다 좋은 의자... 체념하고 어깨를 맞댄다.